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순천향 40주년 특집

멈추지 않는
백년을 향한 비상(飛上)

순천향지기 특별 좌담회
그래픽으로 보는 순천향 40년사
순천향 best of best

2014

통합 의료원보 Vol.23



당신이 나였습니다

봄비가 언 가지를 녹이고 새눈을 띄우듯이
봄 햇살이 언 땅을 찾아가 새싹을 밀어 올리듯이
나는 당신을 찾아 가 당신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초록의 실가지를 찾아 가 흔들듯이
내 손길이 당신을 찾아 갑니다.

일어나세요.
나를 보세요.
숨을 크게 쉬어요.
한길음만 내디더 봐요.
깊고 깊은 어둠속 생명의 근원을 찾아 뻗어가는
나무뿌리 끝처럼
내 눈은 당신의 아픈 데를 찾습니다.

바람 불던가요.
눈보라가 치던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슬픈가요.
고통은 어디에서 오던가요.
당신의 고통이 나를 키우고
당신의 숨결이 나를 지켰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내 온기가 당신의 몸속을 돌고 돌아
찬란한 새 봄을 불러오기를
찬란한 새 날 새 아침을 불러 오기를
새로운 땅을 내 디디는 당신의 굳센 발소리가

세상의 울리는 희망의 찬가가 되기를,
흔들리는 당신의 눈빛을 잡아
새 생명 곁에 세워 둔
내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였습니다.
봄바람이 대지에 하는 일을 알듯이
봄비가 대지에 하는 일을 알듯이
가을 햇살이 가을 풀꽃들에게 하는 일을 알듯이
겨울 빈 가지에 내리는
눈송이가 하는 일을 알듯이
생명의 숨결을 살리며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여기 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끝이 없는 길을 갑니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내 눈을 바라보세요.
내 사랑을 믿으세요.
숨을 쉬세요. 눈을 뜨세요. 일어나세요.
한발 한발 네 디디세요.
내 나이 마흔 살,
그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당신이 나였습니다.

글 | 김용택

이 시는 김용택 시인이 순천향 40주년을 맞아 만든 축시입니다.



표지설명

순천향의 상징인 불사조 피닉스가
순천향 40주년을 맞아 세계를 향해
비상(飛上)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작가 · 미호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23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PHOTO ESSAY

당신이 나왔습니다

Spe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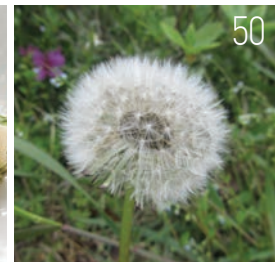
- 02 message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 04 message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 06 theme talk 순천향 40주년 특별 좌담회
- 12 founder 항설, 한국의 메이요클리닉을 꿈꾸다
- 14 SCH decade 그래픽으로 보는 순천향 40년사
- 18 best 순천향 Best 40
- 22 history 서울병원 발전사
- 26 history 순천향대학교 발전사
- 28 history 부천병원 발전사
- 32 history 천안병원 발전사
- 36 history 구미병원 발전사
- 40 future 손글씨로 담은 순천향의 미래와 희망

Communion

- 44 essay 건망증
- 45 food 박태균 기자의 푸드&메드
- 46 romance 거장들의 스캔들 ⑨ 황진이와 지족선사 · 서경덕
- 48 korea restaurant 정식당
- 50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 52 book 「DR유의 진료실 영어회화 매뉴얼」 「미 비포 유」
- 53 movie & stage 「엄마를 부탁해」 「캣츠」

Communication

- 54 news 순천향 뉴스
- 59 schedule 진료 일정표
- 60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순천향〉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지역의 최고가 세계의 최고를 만듭니다”



서 교 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먼저 우리 순천향대학교병원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순천향' 특집호를 발행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천향의 오늘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신 선배 후배 동료, 그리고 지역주민과 환자 여러분 모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향병원이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에 힘입어 성장해온 지 벌써 40돌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마흔 살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향도 마흔 살을 맞으면서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고 순천향 정신을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천향의 의미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편협한 지식을 가졌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순천향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따라 폭넓은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노력하되 늘 봉사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하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순천향이라는 세 글자가 담고 있는 숭고한 교육 이념이자 대학의 설립자이신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님이 평생 실천으로 보여주신 고귀한 순천향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향병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법인 병원입니다. 병원의 이익을, 개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공적개념의 병원은 순천향병원이 최초였습니다. 순천향대학은 또 국내 최초로 의사가 만든 의과대학이며 종합대학교입니다. 지금 충남 아산의 대학 캠퍼스에는 1만5천여 명의 학생과 300여 명의 교수진이 8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순천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특별한 순천향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해 왔습니다.

1974년 조금은 황량했던 한남동에 터를 잡고 개원한 병원이 40년간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지역의 신뢰와 사랑이 그 바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병원만이 세계적인 병원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순천향 정신을 고양하여 지역의 사랑을 듬뿍 받는 병원, 그것을 기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 그리하여 크게 성공한 최초의 병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발전상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 제2병원 신축 계획 추진과 서울병원의 리노베이션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열정을 갖고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 믿음직스럽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립자께서도 우리 순천향병원이 새롭게 탄생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간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직면한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순천향인의 열정과 비전을 가슴에 새겨 존경받는 새 순천향을 위한 원대하고 희망찬 행진을 함께해 나갑시다.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한 ‘광제인술’과 ‘광시육영’의 이념을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순천향정신이 완성될 때까지 다 같이 헌신합니다. 우리 순천향 가족 모두에게 설립 40주년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순천향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더 새로운 병원, 더 환자가 가고싶은 병원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순천향의 설립이념을 되살려 거듭나길 바랍니다”



김 성 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순천향 설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순천향 마흔 살의 이야기 토크 콘서트, 음악회, 헌혈행사, 의료봉사,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순천향의 모체인 서울병원이 1974년에 개원하였고, 1978년 의과대학 설립, 1979년 구미병원, 1982년 천안병원에 이어 2001년에는 부천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우리 의료원을 대표하는 통합의료원보 '순천향'도 특집호를 통해 순천향의 역사와 발자취,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자 합니다.

순천향은 대학교와 산하기관으로 중앙의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부속병원, 약 3천병상 5천여 순천향 가족이 함께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한 중앙의료원은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천향의 뿌리인 서울병원의 개원 당시 교직원을 비롯해 선후배 교직원과 순천향의 미래인 신입 교직원들의 특집 좌담회도 개최하고, 순천향의 설립이념을 되돌아보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저도 좌담회에 직접 참여해 설립자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님과의 인연도 이야기하고 순천향의 발전사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순천향 40년을 와이드 일러스트로 구성해 주요 역사를 되짚어 보고, 순천향의 자람이자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순천향 베스트도 선정했습니다. 각 병원과 대학의 발전사도 정리해 봤습니다.

교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축하 메시지와 순천향에 바라는 소망, 미래의 모습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들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설립이념과 후학을 위한 사랑, 순천향에 심은 정성과 노력의 땀을 모두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특집호를 통해 설립자의 숭고한 마음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순천향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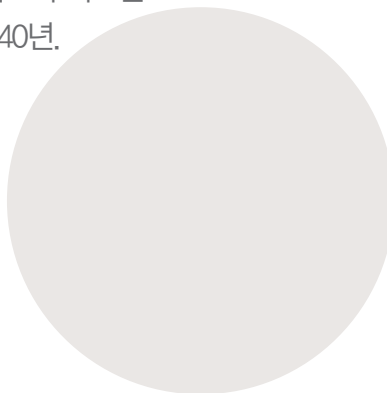
2014년 5월

40주년 특집

멈추지 않는 백년을 향한 비상(飛上)

1974년 한남동 자락에서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첫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시대를 앞선 최신식 시설과 장비,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으로
출발하여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로 달려 온 40년.
극적인 감동과 아픔의 진통,
환희의 순간이 모여 어느덧
장년으로 성장한 순천향의
모습을 특집판에 담아 보았습니다.

좌담회 | 순천향지기 40년을 말하다
향설, 한국의 메이요클리닉을 꿈꾸다
그래픽으로 보는 순천향 40년사
순천향 베스트 40
순천향 병원과 대학 발전사
순천향의 미래와 희망, 손글씨로 담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양명 서석로 박사



순천향대학교병원
40주년 특집 좌담회

“순천향은 나의 인생 그 자체”

대한민국 1호 의료법인, 치열한 40년 지나 알찬 40년 기대한다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열정과 집념의 결실 순천향병원과 순천향대학교가 어느덧 40년의 세월을 덧입는 사이 순천향은 언제나 변화와 혁신의 한가운데 서 왔다.

1974년 7월 개원한 순천향병원이 대한민국 제1호 의료법인체라면, 순천향의과대학은 개업의가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의과대학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순천향의 40년을 다양한 시선으로 돌아보기 위해 40년을 함께 한 개원 멤버에서부터 신입사원까지, 서울병원에서 구미병원까지, 병원장에서 간호부장, 기사장까지 다양한 사람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김성구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개원 멤버로서 평생을 순천향과 함께한 정동광 전 사무국장 ▲서 박사의 제자이자 순천향의과대학 1회 졸업생인 안무영 교수 ▲서 박사의 임종을 지켜 본 서울병원 안지순 수간호사 ▲서울과 부천병원을 두루 거친 부천병원 황태희 간호부장 ▲부천병원 건립의 산파역할 한 박춘식 교수 ▲부천병원 개원 멤버 유병현 영상의학과 기사장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 천안병원 홍보팀 양주연 사원과 부천병원 기획팀 김선홍 사원 ▲천안병원 영상의학과 김일영 교수 ▲구미병원 개원 멤버 김규식 대외협력실장(병원 순으로)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순천향 1세대가 속속 정년퇴임 등으로 자리를 물러나고 있어 순천향의 어제와 오늘을 한꺼번에 이야기 할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순천향 설립 40주년을 맞아 고 서석조 박사를 회고하며 과거와 미래를 나누기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립 40주년을 맞는 감회와 함께 설립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정동광 전 사무처장 : 73년 11월에 군 제대 후 첫 직장으로서 들어와 맡은 임무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업무였습니다. 당시 서 박사님은 백병원 부원장이셨기 때문에 병원 뒷방에서 설립 작업을 했지요. 마침 병원 설립 당시 의료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우리나라의 1호 의료법인이 되었어요.

김성구 중앙의료원장 : 병원 이름은 서 박사께서 ‘순천’까지는 지은 뒤에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순천문’으로 하자는 말에 썩 내켜하지 않다가 당시 김종필 총리께서 ‘순

순천향 통합의료원보에서는 순천향 40주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원장에서부터 개원 멤버, 수간호사,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모인 이들이 각자 다양한 시선으로 설립자 고 향설 서석조 박사를 회고하며 순천향의 4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봤다.

순천향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한남동 서울병원에 모인 이들은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흉상과 40년 전 설립자의 집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총장실을 둘러 본 뒤 좌담회를 가졌다. 순천향 40년을 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어둑해질 때까지 이어졌다.

진행_백승주 / 글_한정현 / 사진_심지연



현재 서교일 총장 집무실은 설립자 서석조 박사가 사용한 검소한 책상과 의자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병원



김성구

- (현)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 1979년 구미병원 입사
- 1980년부터 서울병원 근무
- 서울병원장, 의료원기획조정실장 역임
- 서석조 박사와 내과의국 20년 근무



정동광

- (전)사무처장
- 1973년 입사, 순천향병원 개원 멤버 (직원 사번 1호)
- 총무부장, 사무처장 역임
- 순천향병원 개원 멤버로 참여, 수시로 서석조 박사 보고 및 면담



안무영

- (현)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용산구 치매지원센터장, 심평원 신경과 상근 심사위원
- 서울병원 1991년 입사
- 서울병원 부원장, 순천향대의대 신경과 주임교수 역임
- 서석조 박사 신경과 제자 및 순천향의과대학 1회 졸업생



안지순

- (현)별관 6병동 수간호사
- 1991년 입사
- 중환자실 18년 근무
- 서석조 박사 중환자실 입원 및 임종시 간호



미국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았어요. 미국에서부터 뇌신경계통의 명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국내에 돌아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의과대학 교수 시절에는 가장 뛰어난 신경과 의사로 불리며 명성이 대단했어요. 서 박사가 대학을 옮기면 학생들이 강의를 거부할 정도였고, 병원을 옮기면 환자들이 따라갈 정도였죠.

정동광 전 사무처장 : 설립 초기에는 순천향병원보다는 ‘서석조’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 더 효과가 컸어요. 보사부에 찾아가 명함을 비서실에 주면 국장이 쫓아 나올 정도였고, 국무총리를 수행한 유럽 순방 중에는 국무총리보다도 서 박사가 더 유명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서 박사님은 말은 뜨문뜨문해도 하실 말씀은 꼭 하시고 하신 말씀은 꼭 메모하는 메모광이셨어요. 결재를 할 때에도 기분 좋은 결재는 ‘서석조’라고 사인하는데 불편한 결재는 ‘서’라고만 사인하곤 하셨죠.

김일영 교수 : 나 같은 경우는 순천향을 밖에서부터 보기 시작해 안으로 들어온

천향이 좋겠다고 해서 순천향병원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죠.

(‘순천향’이라는 이름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주치의의를 지냈던 서 박사와의 인연으로 지은 것으로,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순천향 30년사 중에서)

박춘식 대학원장 : 설립 당시 서 박사님에 대한 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는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구고등보통학교 시절 서 박사님은 성적도 좋았지만 유도, 검도, 육상, 장대높이뛰기 등에서 학교 대표선수, 도 대표선수 등으로 활약한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대학은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순천향 설립 40년을 맞아 순천향지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천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우예요. 설립 당시에 저는 한남동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택지를 개발하고 순천향병원이라고 멋진 조감도와 함께 간판을 세우는 걸 보고 ‘어찌 이런 허허벌판에 병원을 세우나’ 생각했었죠. 74년도에는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병원이 들어서며 상가와 음식점이 들어서고 주변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지요. 전에는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했던 땅에 병원이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는 것을 본 지 10년 뒤에 천안병원에 부임해 근무하게 되었죠.

순천향병원의 초기 모습은 어땠나요?

유병헌 기사장 : 저는 78년도에 입사했는데 당시 순천향병원은 의료진과 처우 등이 지금의 삼성 급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삼성그룹이 설립한 고려병원의 급여가 9만원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11만원으로 차이가 많았죠. 당시에는 강남에 병원이 없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모두 여기로 왔어요. 의료보험제도도 미비했던 때였기 때문에 선금을 주고라도 치료를 받으려고 줄을 설 정도였죠.

부천병원



박 춘 식

- (현)부천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 순천향대학교 대학원장, 부천병원 임상의학 연구소장
- 1983년 3월 입사
- 순천향대서울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분과장, 부천병원 건립 부단장, 부천 병원 연구 부원장 역임
- 동은의원 환자의 순천향대 서울병원 진료를 도와드리



황 태 희

- (현)부천병원 간호부장
- 1979년 4월 입사
- 서울병원 수간호사 2000년까지 근무, 2001년부터 부천병원 개원 멤버로 근무
- 내과병동(별) 간호사로서 서석조박사 입원환자 간호하며 가까이에서 진료, 회진하는 모습 지켜봄



유 병 헌

- (현)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기사장
- 1978년 입사
- 2001년부터 부천병원 개원멤버로 근무
- “서박사님이 1999년도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흉부 촬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 선 홍

- (현)부천병원 기획팀 사원
- 2013년 6월 입사
-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졸업
- “서석조박사님은 한 번도 뵈 적은 없지만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서석조 박사님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정동광 전 사무처장 : 설립 초기에는 자금이 없어 본관 부지 구입한 뒤 별관 부지 구입하는 등 절치부심 했어요. 그런 가운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을 꼬박 새워가며 개원하고 대학이며 병원을 세워나갔습니다.

김성구 중앙의료원장 : 당시에 순천향병원은 유명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병원이었어요.

았어요.

처음으로 영안실 냉동시설도 최신식으로 설치했으니 뭔가 다르다, 병원비가 비싸게 아니냐는 소문이 날 정도였죠. 보험제도가 시행된 뒤에도 비싸다는 말도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이었어요.

황태희 간호부장 : 제가 79년도 입사할 당시에는 가장 들어오고 싶은 병원이었어

천안병원



김 일 영

- (현)천안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 1984년 3월 1일 입사
- 천안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임상교과감, 부원장, 순천향대의대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역임
- 2005~2006년 대한복부영상학회 회장, 2004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외부심사위원, 2014년 국가보훈처 비상임심사위원
- “서석조 박사는 천안병원 개원당시 자주 병원을 방문하시어 진료현황을 물어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해주셨습니다.”



양 주 연

- (현)천안병원 홍보팀 사원
- 2013년 3월 입사
- “명문사학으로 성장한 순천향을 보며 서석조 박사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인간사랑 정신을 잘 계승하겠습니다.”

구미병원



김 규 식

- (현)구미병원 대외협력실장
- 1979년 구미병원 개원 멤버로 입사
- 구미병원 경리과장, 사무처장 역임
- 구미병원 개원시부터 서석조 박사님 모셨음
- “서박사님은 늘 아랫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 순천향을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요, 정치인 연예인들만 들어온다고 소문난 병원이었죠. 한겨울에 50명 뽑는 데 600명이 넘게 응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고, 들어온 사람들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김규식 대외협력실장 : 79년 개원한 구미병원은 최초의 대형민간 병원으로 구미지역 특히 공단에 입주하여 시민의 기대치가 높았다. 그러나 개원초기 저조한 공단 입주를 등으로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김일영 교수 : 천안병원도 설립 초기에는 병원을 처분한다는 소문도 나는 등 위기 순간도 있었어요. 99년도에는 노조 파업으로 병원장과 밤을 새기도 했는데 지금은 제2병원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감사하죠.

양주연 사원 : 천안병원에 들어와서 1년을 근무하며 듣지 못한 40년 역사를 들을

수 있어 참 뜻이 깊어요.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순천향에 얹힌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병헌 기사장 : 구내식당 메뉴 중에서 칼국수가 유명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닭을 푹 우려내서 국물을 낸 맛이 일품이어서 토요일에 닭칼국수를 먹으려고 출근한다는 직원도 있을 정도였죠. 서울병원 근처에는 삼풍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있었는데 없어진 지 10년이 되었네요.

김성구 중앙의료원장 : 서울병원은 담이 없고 식당과 상점이 가까워 면회 통제도 안 되고 몰래 빠져나가는 환자도 많아 에피소드가 많았죠.

황태희 간호부장 : 서 박사님이라는 명의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어요. 연예인들도 ‘서 박사님 처방입니다’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던 분들도 금방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신뢰가 대단했지요.

김규식 대외협력실장 : 85년도 경리팀 주임시절, 업무보고 후 서박사님과 점심자리가 있었다. 일개 직원이 이사장님을 모시고 하는 식사자리는 벽찬 감동과 함께 긴장된 나머지 체해서 고생한 기억이 난다. 서박사님은 늘 아랫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가져주셨고 순천향을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셨다.

안무영 교수 : 서 박사께서 김종필 총리의 주치의로서 도움도 많이 주고 애정도 많이 보여주셔서 오해도 많이 받았죠. 한번은 축농증 수술을 하려고 오신 분이 초등학교 때 수술한 의사의 아들에게 다시 축농증 수술을 받은 적도 있어요.

안지순 수간호사 : 제가 83년도에 입사할 당시에는 스스로 오래 있지 못하리라 생

각해서 재형저축에도 들지 않았는데 ‘따뜻한 병원’ 순천향에 이끌려 어느새 30여년을 근무했네요.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99년도에 서 박사께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주임 간호사로 당직 근무를 했어요. 의식이 돌아와서 하신 첫마디가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말씀이셨죠. 2000년 시작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소천 하셔서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순천향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성구 중앙의료원장 : 보직을 맡아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 순천향병원이에요. 여기서 35여년을 보냈으니 순천향이 나에게겐 큰 기차와도 같지요.

정동광 전 사무처장 : 얼마 전 40주년 행사에서 총장님이 금배지도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퇴직한 직원이지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평생 순천향인으로 살아왔고 순천향이 제 인생이죠.

유병현 기사장 : 어느덧 정년을 2년 앞두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감사함’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순천향에는 유난히 장기근속자가 많아요. 철없을 때 와서 부천병원 개관 준비하며 청소한 것 생각하면 서울병원 개관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되죠.

안무영 교수 : 순천향은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만든 의대 1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1회 졸업생인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하곤 하죠. 78년도에 입학해 이제는 졸업 30주년이 되네요. 순천향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어요.

순천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선홍 사원 : 입사한 지 1년 만에 40주



좌담회 참석자들이 서울병원 인근 식당에서 서 박사께서 생전에 즐겼던 맥주로 만찬을 하며 서 박사를 회고했다.



김성구 의료원장이 설립자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흉상을 어루만지며 순천향의 지나온 역사를 회상하고 있다.

년 행사를 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병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직원이 문을 열어 맞아주는 것을 보며 참 가슴이 따뜻한 병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천향의 정신을 살려 50주년, 60주년에도 병원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안지순 수간호사 : 요즘 순천향서울병원은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커피숍도 내부 인테리어가 잘 된 곳을 찾듯 우리 병원도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병원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양주연 사원 : 순천향의 홍보영상에 나오는 ‘사랑을 가진 엄마 같은 병원’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제까지나 깊고 넓은 엄마 마음 같은 병원으로서 많은 환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내길 바랍니다.

박춘식 대학원장 : 86년도에 서 박사님의 이상이었던 독립연구공간 현암신장연구소를 건립하며 새로운 모습을 만들었던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합니다. 연구와 강의와 치료를 잘 하는 역량 있는 의사들이 중흥의 역사를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0베드 미만 병원의 특징점은 직원이 서로를 잘 알아 융화와 교감, 효율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지난 40년이 뜨거운 성장을 해온 시기라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선도자 First Mover

개원의로서 대한민국 제1호 의료법인인 순천향병원을 세웠다. 또 불모지였던 신경내과를 체계적으로 세워 진료과목의 하나로 자리 잡게 했으며 신경과학회를 창립하여 연구와 임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의 전문의제도를 주장했으며, 환자 진료 병원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동시에 세워 의학발전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

공부하는 인간 Homo Academicus

두 손에 분필을 잡고 단숨에 인체해부도를 그리는 그의 명강의는 실력과 언변에서 나왔다. 유학시절 뇌 모형을 직접 만들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임상에서도 연구와 논문 저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석조 문존』에는 서석조 박사의 논문 및 후배들의 헌정 논문 등 수십편이 실려있다. 후학들에게 임상연구와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던 선배의사로 회자되곤 한다.

‘인간사랑’ 휴머니스트 Humanist

그가 모델로 꼽았던 메이요클리닉은 세계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로 환자중심 원칙으로 유명하다. 그의 뇌리 속은 항상 환자 입장과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술 시행으로 가득 찼다. ‘환자를 몰고 다니는 의사’라는 말 속에는 서 박사가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표현한 것이라. 그의 호는 향설(鄉雪), 곧 고향의 눈이다. 그는 고향의 눈처럼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쌌던 히포크라테스가 되려고 했고 후배들에게도 언제나 광제인술을 강조했다.

소박한 의사, 교수에서 의학사의 거인으로

한국의학계가 서 박사를 크게 평가하는 이유는, 독일 영향을 받은 일본 의학을 대치하여 실증의학인 미국 의학을 한국 의학계에 도입한 것을 꼽는다. 특히 신경과학회 창설과 전문의 제도 도입, ‘환자중심 원칙’의 병원 운영, 국내 제1호 법인인 순천향병원과 순천향의과대학 설립은

한국 의료계 발전에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는 서 박사가 의사이자 교육자로 광제인술(廣濟仁術)과 광시육영(廣施育英)의 뜻을 품고 실천한 결과였다.

최연소 의과대학 교수

약관 34세에 연세대학교 내과 교수와 주임교수 역임,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가톨릭의과대학의 내과학교실 기초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뇌졸중’ 의학용어 최초 사용

1962년 가을에 열린 내과학회에서 ‘뇌졸중’에 대한 보고를 하여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CVA(뇌혈관 손상증) 또는 한의학 용어인 중풍으로 불렸는데, 그는 ‘뇌가 무엇인가에 갑자기 얻어맞는다’는 뜻으로 가장 우리말에 가까운 ‘뇌졸중’이란 말을 고안해냈다. 동물실험을 통하여 막힌 뇌의 혈관을 뚫고 치료방법도 돌출해내는 등 관련 논문도 수십 편 발표했다.

향설, 한국의 메이요클리닉을 꿈꾸다

서박사를 읽는 3대 키워드... ‘선도자 · 공부하는 인간 · 인간사랑’

서석조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정신이 모체임을 알게 된다. 바로 선도자, 공부하는 인간, 휴머니스트의 면모다. 전쟁의 상흔과 질병이 만연하던 1950년대 한국의 현실은 참담했다. 의사로서의 숙명을 깨달은 서석조가 부딪친 현실은 한국 의학계의 첫 걸음이었고 개척하며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결단의 연속이었다. 한편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비즈니스를 넘어 ‘인간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으로 ‘양식을 가진 학자’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글_ 권태홍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호 의학박사

「쥐에 미치는 쌀밥의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이 성장과 내분비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호 의학박사로 등재되었다. 이밖에 「인삼이 내분비계통 특히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관련 논문만 해도 수십 편에 이르는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제자들은 서석조 박사를 “진료기록을 꼼꼼히 챙기고,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때로는 말벗이 되어주던 의사였다”고 기억한다. 사진은 생전에 사용하던 유품들이다.

제1호 의료법인 순천향병원 설립

1974년 개원한 순천향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법인. 개원 4년만에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설립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78년 순천향의과대학의 문을 열었다.

병원과 의과대학의 두 날개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순천향병원은 1979년 경북 구미공단 내에 순천향 구미병원, 1982년 순천향 천안병원, 2001년 순천향 부천병원을 세워 전국의료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의사가 최초로 설립한 의과대학

서석조 박사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전문의 제도 도입과 후학 양성의 중요

성을 주장하고, 직접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실천하였다. 이는 한 사람의 개업의로, 또 의과대학 교수로서 강한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의학 교육뿐 아니라 의료행정가로서 한국 사립대학교의 의료원제도 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인간사랑’ 실천한 참의사

서 박사는 평소 “환자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고치는 것이다. 의사는 단지 이러한 하늘의 뜻을 돕는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친절은 바로 환자에 대한 사랑이요 의사의 사명”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의 가르침과 행동은 제자들에게 ‘과묵하면서도 자상한 성품을 지닌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순천향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은 그가 유학시절 메이요병원을 둘러보고 꿈꿨던 참의사로서의 소명감과 병원운영 철학이 함축된 것이다. 





1998.3.27
소화기병센터 개소

2008.8.29
사이버나이프센터 개소

2008.12
5대고위험 수술 잘하는 병
(대장암, 간암, 위암, 고관절)
경피적관상동맥 중재시술

1994
농약중독연구소,
세계최초 파라콰트
중독 치료법 개발



2006.7
오목가슴 교정용 광투시내시경 및
새가슴 교정기 특허등록

1996.12.15
연구관 및 종합건강진단센터 준공
(지하 1층, 지상 6층)

2007.10.1
미숙아 발달 검사
국내 첫 시작

2004
소화기병센터 개소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0.5.23
응급의료센터 지정

1994.12.26
종합건강진단센터 개소

2000.12.13
모자진료센터(향설관)
개관(580.6평)
무균수술실 및 진료실 확장



2001.2
부천병원 진료 개시

2006.8.31
암센터, 심장혈관센터 개소



2001.6
폐 및 호흡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로 지정

2005.12
캄보디아
국가재건훈장
금장 수여





1983.6.27
신관 증축(350병상)

1982.7
첫 의료봉사 실시

1982.7.7
천안병원 개원
(14개과 150병상)

1985.7.12
모자보건센터 준공 및
개원식



1985.8.26
모자보건센터 준공

1985
충청 최초 재건성형수술, 흉부수술 시작

1991.8.1
외래진료관·응급의료센터 준공

1990
충청 최초 복강경 수술 시작

1993.3.4
충청최초 뇌사판정 및
뇌사자 장기이식기관 선정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86.12.4
모자보건센터 설치
(지역모자보건사업 중심 역할 담당)

1990.2.16
신관 증축(연건평 689.5평)

1990.3.1
집단산업보건연구소 개소
(집단산업 보건관리모델 개발)

BUCHEON

그래픽으로 보는 순천향 40년 史



1974.7.6

순천향서울병원 개원식

SEOUL

1978.3.15

순천향의과대학 신입생
제1회 입학식(80명)



CHEONAN

1981.3.21

천안병원 기공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KUMI



1979.9.26

구미순천향종합병원 개원

원 선정
절부분치환술,
)

2009.9.18
순천향의학연구동 개소

2011.1.11
비전선포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

2011.1.31
소화기암센터 오픈

2012.9.27
신관 그랜드 오픈
안이비인후센터, 건강증진센터,
통합의학연구소, 병리과,
전공의 숙소, 열람실, 청원홀, 회의실

2013.7.12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인피니티'가동

2014.3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리노베이션

2012
신생아집중치료
충청지역센터 개소

2012.12.27
천안시와 제2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2011
차세대 소아 응급실 및
석면환경보건센터 개소

2010
암센터 준공, 노발리스티엑스
방사선 암치료센터 개설



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5.25
심혈관조영기 도입 및
심혈관센터 개소

2009.1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종합전문요양기관
(3차병원) 승격

2009.12
토모테라피 치료센터 개소

2010.4
보건복지부 중증외상특성화센터 지정

2010.12
미션 비전 선포

2011.5.2
비전 선포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환자 중심 열린 거점 병원'

2011.2.1
PET-CT
(양전자단층촬영기)
가동

2011.5
별관증축, 1,000병상 시대 개막

2011.11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FERCAP 국제인증 획득

2013.5.20
환경부,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 지정

2014.4.1
소화기내시경센터 및
종합건강증진센터 확장



2013.3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로 선정

순천향 Best 40

서울병원



1 VMAT, SBRT 등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치료와 수술을 한 곳에서

2013년 7월부터 치료 속도와 정밀도, 정확성을 높인 최신형 방사선치료기 인피니티(infinity™)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2008년 도입한 사이버나이트와 함께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치료와 수술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2 허경열 교수, 축소 위우회술로 한국형 2형 당뇨 치료, 복강경탈장 수술도 최다 집도

외과 허경열 교수팀은 축소 위우회술(위의 절반을 잘라내고 나머지 절반은 상부소장을 우회해 하부 소장과 바로 연결하는 수술)이 소화관 호르몬인 인크레틴의 분비를 조절해 혈당을 낮추는 원리를 입증했다.

3 고도비만 수술 최다 기록

외과 김용진 교수의 고도비만수술센터는 고도비만 수술 800건을 자랑한다.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위 소매절제술, 위우회술 등을 시행해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4 국내 최초 소화기병센터, 치료내시경의 메카

소화기병센터는 1998년 3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센터를 개소한 이래 첨단 내시경 시술을 최초로 도입 국내외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OMED)로부터 전세계 총 17개 교육센터 중 하나이자 국내유일의 국제내시경교육센터로 인증 받았다.

5 조주영 교수팀, 9년 연속 미국소화기병주간 학술대회 교육비디오상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은 9년 연속 미국소화기병주간 학술대회에서 교육비디오상을 수상했다. 교육비디오상은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내시경의사들을 상대로 연제를 공모하여 수백 개의 출품작 중 우수비디오를 선정, 시상하는 것이다.

6 무수혈치료 선도 무수혈센터

2000년 3월 무수혈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해까지 1,524건의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무수혈 수술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의 증가로 환자 의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찾는 국제진료센터

1999년 문을 연 국제진료센터는 최근 월 평균 1,200~1,400여건의 진료를 보고 있다. 국적도 매우 다양해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을 비롯해 한국에 거주민이 많지 않은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파나마, 코스타리카, 페루 등 100여 개 나라의 환자들이 찾는다.

8 혈액투석환자의 최후 보루 혈관센터

순천향대학교병원 혈관센터를 이끌고 있는 문철 교수의 전문분야는 혈관동정맥루 형성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혈관 형성술을 집도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투석환자를 위한 인조혈관의 20% 이상을 소모할 정도로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9 최중철 임상병리사, 입사 후 매년 헌혈로 사랑 실천

진단검사의학과 혈액은행에서 근무하는 최중철 임상병리사는 입사한 이후 매년 빠짐없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혈액부족을 알고 있는 터라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0 방덕원 심장내과 교수, 재즈앨범 4,000여장 보유

방덕원 심장내과 교수는 재즈마니아로 유명하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재즈와 동고동락해 온 방 교수는 현재 4,000여장의 재즈앨범을 보유하고 있다.



설립 40주년을 맞은 순천향병원의 베스트오브베스트를 40개만 추려 보았습니다.

인간사랑의 정신으로 달려 온 순천향. 의료 기술만큼이나 환우를 사랑하는 마음도 베스트였습니다.

부천병원

1 호흡기질환 연구의 선두주자, 폐 및 호흡기질환 유전체 센터

2001년 개원과 동시에 임상의학연구소를 개설했으며 국가로부터 '폐 및 호흡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로 지정. 박춘식 교수는 천식발생 유전자 Eotaxin 1, 2 세계 최초 규명(2003년 5월),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질환 발명 매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2007년 1월), 천식 유전자 변이 세계 최초 발견 등의 학술성적을 거뒀다(2007년 2월). 장안수 교수는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사업 지원과제에 선정됐다(2003년 11월).

2 국내 10위권에 빛나는 '간이식 수술'...뇌사자관리기관 지정

외과 김형철 교수가 이끄는 간이식팀이 경인지역 최초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다. 2011년에는 아시아 최초 무수혈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으며, 2013년 부천병원 최초 외국인 환자의 간이식 수술에도 성공하는 등 간이식 부문 국내 10위권 의료기관으로 도약했다.

3 경인지역 최초 인공와우수술 및 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성공

2002년 5월 경인지역 최초로 인공와우수술을 성공한 이래 2014년 4월 현재까지 총 134례의 수술을 시행했다. 또한 중앙혈액내과는 2012년 5월 경인지역 최초로 반(半)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했다.

4 국내 9번째 네쌍둥이 탄생...47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성공

소아청소년과가 2012년 10월 470g의 초극소 미숙아 치료 성공. 부천병원은 2009년 720g 미숙아, 2010년 24주 만에 출생한 신생아 치료에 성공했으며 2012년 극소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무수혈 치료도 성공했다.

5 소화기내과 각종 분야에서 최초 타이틀 섭렵

이문성 교수는 91년 국내 최초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 또한 90년 세계 최초로 폐색 동반 직장암에 인공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문중호 교수는 독보적인 '풍선을 이용한 담도내시경 검사법'을 개발해 세계를 무대로 초청 강연을 진행 중이다. 2013년 10월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럽소화기학회 주간에서 내시경 라이브 시연을 진행했다.

6 한감봉사회 2002년부터 3만1,517명 진료...한미인마봉사회도 발족

부천병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감봉사회(화장 신원한 교수)가 2002년부터 12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671건의 수술로 총 3만 1,517명을 진료, 2004년부터 실시한 캄보디아의사 연수생 50명 배출을 앞두고 있다.

7 '녹색경영' 선포...대통령 표창 수상

부천병원이 의료원 최초로 2013년 5월 환경부와 환경복지에 앞장서기 위한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 7월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의 성과로 이어졌다.

8 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1일 외래환자 3,500명 돌파

부천병원은 2009년 1월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개원 후 5년간 수입 성장률은 평균 약 22%로 2014년 2월 3일(월) 1일 외래환자 수 3,500명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9 순천향 의료원 내 중증해외환자 최다 유치

부천병원은 의료원 내 최다 중증해외환자를 유치하며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9년 국제진료소를 오픈, 2013년 해외환자 1,000명 시대에 도래했다. 현재까지 누적 외국인 환자 6,000여명(2014년 4월 기준)을 기록했다.

10 미래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체험행사 지원자 경쟁률 20:1 기록

부천병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개최한 '미래의대생을 위한 1일 병원체험행사'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2014년 7월 개최한 제7회 행사에서는 약 1,200명의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20:1을 기록했다.



천안병원



1 농약중독연구소

세계 최초로 농약중독과 카드뮴 중독 치료법을 개발하고, 만성농약중독의 진단기준을 마련, 매년 500여명에 달하는 농약 및 독극물 중독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다.



2 오목가슴/새가슴클리닉

이승진/이석열 교수가 운영하는 클리닉은 오목가슴 교정에 사용되는 '광투시내시경'과 '2중압착고정장치', 새가슴 교정에 사용하는 '디지털 고정기'를 개발해 국내외 특허도 출원 등록했다. 세계 최고의 클리닉으로써 다양한 교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도는 물론 교정 성공률도 100%를 자랑한다.



3 조기폐암진단클리닉

호흡기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 전체 암 가운데 사망률 1위, 조기 진단이 가장 어렵다는 폐암의 진단 능력이 뛰어나다. 충청권 최초로 형광기관지내시경, 초음파기관지내시경 등을 도입하는 등 최신의 검사방법들을 조합해 폐암 조기 발견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폐암 환자들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었다.

4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내과 나성수 교수는 그리스에서 열린 제 1회 세계섬유근통 포럼에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이 포럼에는 전 세계 전문가 200여명이 초청되었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섬유근통연구회 창립멤버로 아시아 최초 류마티스질환 치료 신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할 정도로 세계 학계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5 노발리스 티엑스 방사선 암치료센터

미국 FDA가 공인한 세계 최고의 방사선암치료기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를 비롯해 고주파온열암치료 등 다양한 암치료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노발리스 티엑스는 모든 최신 방사선치료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가동 1년만에 암치료건수 1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6 소아청소년 수면장애클리닉

충청권 유일의 소아청소년 수면 문제 연구와 수면장애를 집중치료하는 전문센터다. 소아청소년과 및 신경과 5명의 교수진이 함께 운영하는데 '전국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수면의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7 석면환경보건센터

환경부가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전국에 두 곳뿐이다. 천안병원은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 이북지역의 석면피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정부의 석면구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천안병원은 2009년 국내 유일의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전국의 석면피해 위험지역 조사와 판정을 비롯하여, 교육과 각종 연구업무를 수행했다.



8 찾아가는 무료 암 강좌

2001년 국내 대학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시작한 암 전문 강좌로 직접 암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암 전문 교수들이 암에 대한 올바른 예방법과 치료법, 조기진단 방법 등을 전달한다. 2001년 5월 17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00여 회 강좌에 3만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수강했다.

9 장애우들이 운영하는 사랑의 콜센터

2010년 10월 오픈한 사랑의 콜센터는 총 14명의 전담직원 중 관리자 1명을 빼고는 모두가 장애우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정규직으로, 장애우 배려의 순천향대병원의 인간사랑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천안병원 콜센터는 기존의 교환실 업무를 비롯해 해피콜 서비스 등 친절한 응대로 고객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10 8년 역사를 지닌 원격영상진료서비스

2007년부터 원격영상진료를 통해 서해 섬지역과 내륙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남도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원격영상진료서비스는 화상을 통해 진료과 전문교수들이 직접 참여해 도움을 주고 있다.

1 집단산업보건관리연구소 개설, 근로자 건강증진 및 예방의 대표 의료기관

구미병원은 1990년 집단산업보건관리연구소를 개설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관리 대행업무를 개시하는 등 직업병 관련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2 초극소 미숙아 치료 성공, 영남권 신생아중환자 치료의 메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나 조산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20대와 인공호흡기 5대를 가동, 최첨단 의료장비와 전문의의 진료로 경북 권역의 미숙아 집중 치료 및 신생아 관리의 메카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 3년 연속 평가 우수

3년 연속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공신장실은 연간 7000여건, 경북최다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만성신부전환자의 카테터 삽입, 동정맥루 시술, 혈전폐쇄의 합병증 치료 및 관리, 중재적 시술 등 혈액투석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다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4 인터벤션 분야 선두주자, 자궁동맥 색전술 시행

인터벤션은 간암색전술, 자궁근종색전술, 산후 출혈, 동정맥루, 인공투석, 풍선성형술 등을 진료하는 곳. 1999년 개설 이후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치료결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특히 양승부 교수의 자궁근종색전술에 대한 연구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다.

5 MBC 느낌표 '눈을 떠요'의 배경이 된 의료봉사단 개안술

1984년 출발한 의료봉사단은 무의촌지역의 소외된 빈곤계층과 의료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면서 390차, 3만여 명에게 무료진료 활동을 펼쳐왔다. 참사랑을 실천하는 의료봉사를 꾸준히 벌인 결과 2002년 보령의료봉사상과 2004 MBC 사회봉사대賞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6 학대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앞장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의료기관 최초로 학대아동들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순천향구미햇살아이 지원센터'는 학대아동에게 진료, 수술, 심리검사 및 치료를 통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2007년부터 총76명의 피학대아동과 위기가정 아동에게 진료비, 수술비,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7 대구경북 최초 단일통로 복강경 수술 시행, '환터 최소화'에 앞서다

환터를 남기지 않는 '단일통로 복강경수술법'이 2009년 외과팀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시도됐다. 맹장염 환자의 단일통로 복강경수술법이 첫 시도된 이래 담낭 절제술도 성공했으며 이후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등에서 복강경수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8 유해가스와 건강영향 인과관계 연구,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

2012년 9월에 일어난 (주)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5월 환경부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다. 불화수소가스 등 유해가스 노출과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건강 이상 유소견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9 장애 및 재활 치료환경의 최적화, 재활치료는 순천향

2011년 3월 개설된 재활의학과는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스포츠 손상으로 인한 재활치료를 진료분야로 한다. 소아만을 위한 별도의 치료실과 발달장애와 뇌성마비 아동들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공간으로 지역 유일의 재활센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10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치료 연계,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랑 실천

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제일외국인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상북도 지정병원으로 이주여성들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8개교 12명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홍보대사제도는 진료 안내, 의료진 연계, 통역 지원이 가능해 외국인들의 병원이용을 돕고 있다.



순천향 병원

&

대학 발전사

서울병원
발전사

세계로 인간사랑 실천하는 국내 1호 의료법인

‘순천향’의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께서는 1972년 12월 총무처로부터 현재의 서울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이듬해인 1973년 4월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들었다. 장마철이면 한강물이 역류하는 상습 침습지 허허벌판에 순천향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정리 _ 편집부

대한민국 의료법인 1호 탄생

1973년 12월 27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 설립허가를 받으며,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가 탄생했다. 이후 1년이라는 단기간에 본관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진료에 필요한 의료진과 행정직을 모집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1974년 5월 6일 드디어 첫 진료를 개시했다. 순천향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개원 당시 본관 건물은 지하2층 지상8층, 옥탑 2층으로 연건평 3,300평 규모에 250병상으로 개원했다. 당시 일반 종합병원으로서는 큰 규모인데다 의료장비와 시설도 최첨단을 자랑했다.

의료진 역시 서석조 이사장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진료에 참여해 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다.

1974년 7월 6일 내외 귀빈을 모시고 개원식을 거행했다. 같은 해 10월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 1975년에 인턴 16명, 1976년에는 전공의 10명을 모집해 전문의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1976년엔 산업의학연구실을 설치했고, 1977년엔 암연구소도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제1호 의료법인 순천향병원은 1974년 한남동 자락에서 서울병원이 첫 진료를 시작하였다. 4년 뒤 전문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1978년 순천향 의과대학을 설립했으며, 이후 구미병원(1979) 천안병원(1982) 부천병원(2001)이 잇달아 문을 열었다. ‘인간사랑’을 설립정신으로 한 의사가 만든 1호 병원, 의과대학의 순천향 역사는 소명감과 전문성, 봉사와 나눔 실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글_ 각 병원 홍보실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 자리매김

1978년 1월엔 학교법인 동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는 한편,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을 해산하고 순천향 중앙의료원 기구를 설치했다. 3월 15일에는 신입생 80명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순천향의 과대학 제1회 입학식을 거행했다.

현재 30개 진료과에 749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160여 명의 전문교수진을 포함하여 1,600여 명의 교직원들이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 응급의료센터, 혈관센터, 유방센터, 신장센터, 심혈관센터, 소화기병센터, 소화기암센터, 척추센터, 관절경센터, 한국모자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신경통증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소아알레르기호흡기센터, 무수혈센터, 고도비만센터, 당뇨내분비센터, 메디컬투어리즘센터 등 전문 센터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협의진료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 유일 최다 기록 양산

1998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소화기병센터는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인증한 국내유일의 '국제내시경 교육센터'이며 미국 소화

기병주간학술대회에 9년 연속 교육비디오상을 수상했다. 조기위암 내시경 수술을 국내 처음 도입하는 등 치료내시경 수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2013년 8월 리노베이션을 통해 환자의 편의와 사생활을 최대한 고려한 진료실과 검사실을 재배치하고, 공간도 크게 확장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수혈센터는 2010년 10월 국내 최초 무수혈 수술 2천례를 달성했다. 종교와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암수술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무수혈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혈관센터에서는 매년 1,500례 이상의 혈관접근로 수술이 이뤄지고 경피적혈관성형술 역시 국내 최다 경험을 자랑한다.

고도비만대사수술센터 역시 대학병원급에서는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800례 가까운 고도비만수술 경험과 노하우로 환자를 살피고 있다. 한국형 당뇨라 불리는 2형 당뇨를 수술로 치료하는 위축소 우회술 역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외과 주말수술센터를 오픈해 토요일에도 사전 예약을 통해 갑상선결절, 탈장, 하지정맥류, 맘모톰, 치질, 담낭수술, 고도비만 수술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허경열 외과 과장을 비롯해 이민혁 김재준 김용진 윤상철 이지현 김명진 등 관련 질환 담당

교수들이 마취통증의학과와 함께 평일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수술을 집도한다.

건강증진센터와 안이비인후센터는 2012년 9월 신관 오픈과 함께 공간과 시설, 장비를 크게 확장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절제된 마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자연채광을 최대한 살렸다. 자연이 가진 정화와 따뜻한 느낌을 담았고,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과다한 장식을 배제한 모던한 공간으로 연출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은 5층과 6층 2개 층을 사용하는 건강증진센터이다. 이전 보다 2배 이상 공간을 확장하고 장비도 새롭게 바꾸는 등 고품격으로 단장했다. 검진을 받는 고객은 먼저 6층 웰컴 로비에서 접수와 상담을 받고, 검사를 진행한다.

2013년 7월에는 동북아시아 최신행 프로그램을 탑재해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인피니티를 도입했다. 인피니티 가동에 따라 기존의 선형가속기와 로봇 암 치료기 사이버나이프를 연계해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3.0테슬라 MRI, 128채널 CT도 도입해 MRI는 총 2대, CT는 총 3대를 가동해 대기시간과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켰다. PET-CT를 비롯해 각 진료과에서 필요한 진단 및 검사장비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상급종합전문병원의 역할과 사명 진력

학술활동으로는 국제치료내시경 워크숍을 비롯해 매년 2회 개최



개원당시 전경



의학연구동 개소



소화기병센터 치료내시경 국제심포지엄



인피니티



리모델링한 응급의료센터 내부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기 공간, 여성을 위한 부인과 전용 공간 등 입체감 있는 MASS와 조명을 연계하여 풍요로운 공간을 구성했다.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한 동선 배치로 고객과 의료진 모두에게 시각적, 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과는 기존 공간보다 2배 가까이 확장해 한층 업그레이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력 및 안압검사실, 망막검사실, 각막검사실, 눈초음파검사실, 렌즈전안부검사실, 레이저치료실, 소수술실 등을 갖췄다. 이비인후과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각종 검사실과 치료실, 소수술실, 수면장애클리닉, 음성클리닉, 난청 및 어지럼증 클리닉, 두정부암 클리닉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는 복부초음파와 진단 및 내시경초음파 워크숍, 소화기암센터 심포지엄, 척추심포지엄, 줄기세포치료센터 및 임상분자생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줄기세포심포지엄, 무수혈외과 심포지엄, 당뇨수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3회 이상 경험을 자랑하는 복부초음파와 진단 및 내시경초음파워크숍은 매회 400명 이상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들이 참석해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10년 경험을 쌓고 있는 순천향척추심포지엄 역시 매회 200명 가까운 척추외과 전문의들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주변의 외국공관과 이태원 관광지 등 외국인들이 많은 특성을 살려 99년부터는 전담 진료진을 배치한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연인원 14,000여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2010 외
국인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패를 받았다.
2003년부터는 CEO를 위한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건강과학
대학원 건강과학(Health Science Academy)CEO과정을 개설하
여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병원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과
정을 통해 배출한 동문이 1,200명을 넘어섰다.

상급종합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료협력
센터를 개소하여 1, 2차 의료기관과 여타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
원에서 의뢰해 오는 환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720여 개 협진병
의원과의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매년 4월과 11월
협력병원 세미나를 통해 교류와 협력을 넓히고 있으며, 협력병
의원 원장과 최신 의학정보를 소개하는 '닥터스'를 발행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QI활동과 고객관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내도우미, 이동도서 서비스, 음
악연주, 각종 전시회를 통해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더불어 사는 사회와 인간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시립서울장애인종합
복지관의 지원으로 1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사무보조, 콜센터,
도어서비스, 안내, 차트 이송 등의 분야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직
원은 총 20여 명, 그 중 10명이 중증장애인이다.

2011년부터는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을 위해 지역 중심
의료봉사활동과 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연중 자원봉사활동을 펼
치고 있다. 매년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와 함께 건강검
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으며, 용산
구보건소와 용산노인종합 복지관과 함께 매년 30회 이상 건강강
좌를 개최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불우한 환자의 후원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창립한 '순천향나눔회'(회장 이동환·소아과 교수)에서는 교직원
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사랑의 모금함, 외부후원을 통해 마련한 기
금으로 매년 30여명의 불우 환우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병원의 사회공헌은 국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
력 및 지원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용산구와 함께 베트남 퀴논시에 백내장수술센터를
오픈했다. 용산구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는 자외선이 강해 백
내장 환자가 많고 실명환자 10명 중 7명이 백내장이 원인이지만
백내장 수술 장비가 없어 많은 시민이 실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
다. 용산구청과 함께 퀴논시를 방문한 서울병원 의료진이 현지

서유성 서울병원 병원장

“이노베이션을 통한 창의적 조직문화로 일류병원으로 거듭날 것”



개원 40주년을 맞아 강한병
원,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병원은 수
익증대를 통한 건실 경영, 공
간의 효율적인 구성과 재배치,
조직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여
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가시
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
다. 신관 오픈을 계기로 외래
검사실, 진료실, 각 센터 등을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변화는 환자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
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최우선 고려
해 모든 외래 진료가 같은 층에서 이뤄지도록 바꿨습니다. 특히, 응급의
료센터와 소화기병센터, 유방센터, 심혈관센터를 대폭 확장해 쾌적한 환
경에서 환자를 돌 볼 수 있게 했고, 국제진료센터도 강화하고, 글로벌운
영팀도 출범해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 해는 '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화두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경영혁신, 진료환경 혁신, 미래 먹거리력을 위한 혁신, 병원의 위상
혁신, 교직원들의 마음가짐 혁신이 그것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즐거운 일터를 만들고
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 병원의 비전인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을 만
드시 만들겠습니다. 10년 이내 우리 순천향은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
좋은 병원, 강한 병원'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병원, 더 발전하는 병원, 순천향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병원
으로 만들어 진정한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백내장 장비 지원 및 의술 전수를 요청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한국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외국인 의사연수사업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있으며, 캄보디아 시엠펙 주립병원 역량강화사업, 이종욱 펠
로우십 장기연수과정 운영, 미얀마 쉐곤다인 병원 국내초청연
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건강 돌보미 사업, 몽골과 베트남 등
의료시설이 낙후한 나라의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발전사

의사가 세운 최초의 의과대학

향설 서석조 박사는 순천향병원 개원 이틀만인 1974년 7월 8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대학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사회에 필요한 의료 인재를 배출해내는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는 청년의사로서 품었던 사회와 국민에 대한 나눔의 실천이었다. 당시 도내에 의과대학이 없던 충남서북부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지방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구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생각한 거시적 안목에서 신창설에 1978년 3월 1일에 의과대학을 세운 것이었다.

정리 _ 편집부

양식을 가진 배운 자, 교육의 길을 묻다

“창학이념이라는 게 별 게 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학을 운영해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인류에 봉사하고 싶었네. 대학교육은 노벨상 수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인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교육의 참 뜻을 구현하는 데 있지. 특정 지도자를 추구하기보다는 양식 있는 학자를 배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고 생각하네”
누군가 창학이념을 묻자 서석조 박사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 있어 양식을 갖춘 배운 자를 길러내는 것이 그의 선명한 뜻이었다.

순천향의과대학에서 순천향대학으로 교명 변경

보통의 대학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인문사회계열 학부를 먼저 개설하고, 이후 이학, 공학, 의학 계열 학부를 증설한다. 그러나

순천향대학은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의과대를 먼저 시작했고, 다음으로 자연과학대학을 만들었다. 값비싼 연구 기자재와 설비로 인해 초기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신설학과를 정할 때 향설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면이 바다이고 국토가 좁으니 해양과 토양을 이용할 수 있는 생물학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물리학과, 화학과와 함께 생물학과가 신설되었다. 그의 혜안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제1회 졸업생 117명 배출과 종합대학 승격

1984년 2월 24일 제1회 졸업식에서는 의학사 54명, 이학사 63명이 순천향 졸업생의 이름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향설은 의과대학으로 출발한 순천향이 종합대학이 되길 희망했다. 자연과학 계통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길이라 여겼다. 다른 대학들은 인기가 없으며 포기한 학과도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고 향설은 주장했다. 드디어 1990년 3월 1일 5개 단과대학을 거느리는 종합대학 승격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이 해에는 토머스제퍼슨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교류의 첫발을 내디뎠다.

연구인프라 구축에 몰입 / 향설기념중앙도서관 개관

1995년 10월 소화기연구소, 임해자원개발연구소, 분자생물학연구소가 잇달아 문을 열었으며 교내 LAN 통신망을 개통하여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순천향대 창업지원단 출범식



총장과 총학이 소통하는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숙형 기숙사 조감도

1997년에는 건축가 승효상의 설계로 지식 정보 문화 허브인 향설기념중앙도서관이 준공되었다. 환경 친화적 설계와 빼어난 조형미, 사용자의 편의 우선 등의 이유로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10월에는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평가에서 의학과 학부와 대학원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중국 산둥대학, 산둥사범대학과 학술협약을 체결했고, 이어 미국 미시건과학기술대학교와도 학술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갔다.

이순신 연구소 설립/중부권 창업지원의 메카로 부상

1999년 4월 1일 국내 최초 대학부설 이순신연구소를 설립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적 유산을 발굴, 연구하고 국제학술세미나와 관련서적 발간을 통해 이순신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순천향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창업지원센터 설립 붐이 일어났다. 정보통신부에 의해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우수센터로 뽑히고, 해양수산 산업보육센터로도 선정된 것. 2006년 9월에는 한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외국어와 국제적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국제기숙사 글로벌 빌리지((총 6개동, 229세대, 1067명 수용)가 문을 열기도 했다. 현재 73개국 580여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편 세계에서 163번째 공자아카데미가 순천향대학교에 문을 열

었고 개원 후 활발한 교육과 활동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세계 3위의 내용을 갖추었다는 공식 평가를 받았다.

서교일 총장 취임, 유니크유니버시티 비전 발표!

순천향대의 미래 청사진은 '순천향메디바이오밸리'에 맞춰져 있다. 3000여 병상의 네트워크와 대학 내 50여 개 학과 가운데 의생명 관련 학과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며, LINC(Lab-based Industry Cooperation)에 6개 단과대학 41개 학과 207명의 교수진, 8427명의 학생, 7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이들 인프라를 구심점으로 하는 순천향의 생명연구원(SIMS)이 설립되어 제2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써 순천향의과학클러스터(의과대학-천안 병원-SIMS)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천안 바이오밸리'의 핵심단지로 부상하게 된다.

한편 순천향대의 대표적인 신개념 교육브랜드 사업인 SRC(Soonchunhyang Residential College: 기숙형학습공동체)가 시행된다. 이 계획은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주시켜 학생들의 진로·취업 및 교양을 위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유니크유니버시티의 비전은 건학이념인 '인간사랑과 나눔 정신'의 바탕 위에 순천향대만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으로 구현된다. 



부천병원 발전사

지역과 함께 ‘글로벌 명품병원’으로 도약

부천병원은 설립자인 고 향설 서석조 박사의 뜻에 따라 ‘인간사랑’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2001년 개원했다. 지난 13년간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1,000병상 규모에 300여 명의 의사와 700여 명의 간호사 등 교직원 1,800여 명이 종사하는 매머드급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31개 진료과, 16개 전문센터, 108개의 세부클리닉을 운영하며 의료진간 긴밀한 협진으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리 _ 편집부

서부권 최고의 중증환자 진료기관

부천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으로서 그 역할에 맞는 ‘중증의료분야’의 특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어려운 진료 분야에 있어서도 훌륭한 성과를 내며 중증환자 진료기관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최상의 의료장비와 시스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갖춰 ‘환자 중심 진료’를 펼치고 있다. 개원 당시부터 갖춘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화검사시스템(TLAS), 동양 최초의 디지털 영상장비(DDR), 광역 의료정보시스템(WAMIS) 등은 의료계의 이목을 끄는 대목이었다. 환자 진료를 위한 투자는 13년간 지속돼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토모 테라피, 최첨단 전신 암 진단기 PET-CT, 자기공명영상 MRI 등을 갖추고 최상의 진



료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가장 편한 진료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내분비내사 질환센터, 소화기병센터, 암센터, 심장혈관센터 등 16개의 전문센터와 108개의 세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센터 및 클리닉에서는 각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진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원스톱 진료를 받도록 구현했다.

해외 중증환자 ‘러쉬’... 외국인 전용 ‘국제병동’오픈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대상 간이식 수술, 암 수술, 자궁근종 수술, 내시경 수술 등 현지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중증질환에 대한 성공적 치료성적을 보여 왔다. 그 결과 한 해 1,8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찾는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만을 위



한 ‘국제병동’을 오픈해 환자 편의를 증대했다. 국제병동 내에는 코디네이터 상주 공간이 설치돼 환자들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화상전화 등이 설치된 외국인 휴게실과 외래진료 대기실을 마련해 호텔식 병원을 구현했다. 특히 화상상담실은 환자들이 귀국해서도 주치의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진료 받는 외국인 환자들은 러시아 환자가 약 60%로 가장 많으며 카자흐스탄, 중국, 미국, 몽골 등의 환자가 많다. 이 외에도 6개 대륙 44개 국가의 환자들이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수소문해 찾고 있다.

나눔과 베품으로 실천하는 ‘인간사랑’ 순천향 정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개원해인 2001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2001년 7월 결성된 의료봉사단은 개인마다 처한 환경은 다를지라도 의료 영역에는 차별이 있어서

주요 중증치료 성과

- 경인지역 최초 인공와우이식 수술 성공(2002.5)
- 담석 합병증 미리지증후군에 대한 획기적인 진단방법 개발(2003.4)
- 보건복지부 지정 심장병치료 우수병원(2005.11)
- 국내 최초 위암 복강경위절제술 라이브 시연(2006.2)
- 경인지역 최초 간이식 수술 성공(2007.4)
- 주요 30대 질환(편도절제술 분야) 상위 5개 의료기관에 선정(2007.12)
- 급성기 뇌졸중 우수기관 선정(2009.1)
- 타인종 비혈연간 공여자를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 성공(2009.2)
- 중증 외상 특성화센터 지정(2010.4)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2010.10)
- 아시아 최초 무수혈 간이식수술 성공(2011.5)
- 경인지역 최초 반(半)일치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성공(2012.5)
- 47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 치료 성공(2012.10)

주요 학술 성과

- 폐 및 호흡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지정(2001.6)
- 천식발생 유전자 Eotaxin 1,2 세계 최초 규명(2003.5)
- 환경분진이 기도염증과 신호전달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RNA interference에 의한 조절법 개발로 한국과학재단 특장기초연구사업 지원과제 선정(2003.11)
- 세포치료연구센터 개소(2004.12)
- 이종 박동식 심폐용 혈액펌프(T-PLS) KT 마크 획득(2005.3)
- 대한심폐소생협회 및 미국심장협회 인증 심폐소생술교육기관 선정(2005.12)
-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질환 발병 메커니즘 세계 최초 규명(2007.1)
- 천식 유전자 변이 세계 최초 발견(2007.2)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한국인체자원협력은행사업 지원 대상기관 선정(2008.6)
- 아킬라시아 운동 특성 세계 첫 규명(2010.6)
- 세계최초 대기오염과 중이염 상관관계 규명(2012.5)



외국인 첫 간이식 성공



정부 지정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선정

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재까지도 매년 봄 인천시 장봉도에 소재한 성인지적장애인 수용시설 '해림원'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으며, 가을에는 부천시 주민들을 위한 '복사골 건강한마당 축제'에 참여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의료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환자들을 돕고 있다. 이 외에도 사랑의 끝전메기 운동, 봉사동호회 나눔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있다. 특히 연간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성금 약 3,000여만원이 경제사정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의 손길은 국경을 넘어 취약한 의료환경 속의 글로벌 이웃에게도 향하고 있다. 오랜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개원 초부터 결성된 한감봉사회는 현재까지 10여 년간 매해 여름 캄보디아 현지에서 수백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의사들을 초청해 1년간의 연수사업도 펼쳐 실질적으로 캄보디아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캄보디아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의사연수사업 시행(왼쪽)
장봉도 의료봉사 (오른쪽)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Green Hospital 확산의 핵

부천병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녹색경영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9년부터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그 후 직속 녹색경영위원회 산하 에코 플러스팀을 운영해 잔반 제로 캠페인 등을 진행했으며, 매월 Green Letter 소식지 발송 및 계시물 게재, 원내 직원 교육 시행을 통한 에너지 절감 활동, 장비 냉각수 재활용을 통한 용수비 절감 및 장비효율 극대화 사업을 시행했다. 2013년 5월에는 환경부와 '친환경 경영 확산 협약'을 체결해 녹색경영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 및 교육, 보건·의료 분야 통합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녹색경영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7월에는 의료원 산하병원에서 유일하게 2013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국내 의료계에서 'Green Hospital' 확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문성 부천병원 병원장

“초심”으로 돌아가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제 14살이 되어 청년기에 들어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세계무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해외환자 중증치료 의료기관의 중심으로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초심발심(初心發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고 가꾸려면 매사를 돌아보고 다져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초심(初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곧 발심(發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는 또 한 번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아름다운 도전에 지난 13년간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인간사랑’의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개원 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IMF라는 역경을 딛고 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의 교직원들이 헌신 속에 심은 씨앗은 지역주민의 사랑을 거름삼아 부지런히 자랐습니다. 이제 그 씨앗은 지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술과 학술분야에서 크고 아름다운 과실도 맺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13년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직 열정과 헌신으로 씨앗을 키워주신 1,800여 명의 교직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천안병원 발전사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 ‘한국의 메이요클리닉’ 지향

1982년 7월 7일. 충청권 최고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과 기대 속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 그날은 충청지역 장항선일대의 주민들이 숙원을 푼 날이다. 충청은 그동안 조금만 병이 깊어도 대전이나 서울 등 대도시 큰 병원을 찾아가야 했던 의료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정리 _ 편집부

충청권 의료 숙원을 단박에 해결

당시 천안병원은 천안시에서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최신식 고층 건물이라 지역민들에게는 구경거리 중의 하나였다. 건물바닥도 깨끗해 시골 노인들은 낯선 병원 내부를 출입할 때 남의 집 안방 들어가듯 신발을 벗는 해프닝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한다. 천안병원은 당시로서는 천안의 랜드마크였던 셈이다. 서석조 박사가 직접 진두지휘 해 세워진 당시 천안병원의 규모는 총 150병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신식 건물에 최신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꾸려진, 말하자면 성능 좋은 최신형 데스크탑 컴퓨터였다.

출발부터 빛과 소금 같았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의료진은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경이로운 행보를 시작한다. 개원초기부터 지역 최초 신장이식, 심장수술 등 거의 모든 큰 수술과 고난도 치료들을 척척 해내며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었고, 엄마 품과 같은 인간적인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 전체를 품어냈다.



순천향 간판 ‘농약중독연구소’

천안병원에는 우측표에 거론되지 않은 진료 및 연구 성과와 업적들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수많은 천안병원의 성과와 업적들은 순천향정신인 ‘인간사랑’으로 무장한, 오직 환자를 위한 선진 의술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 열정의 순천향 히포크라테스들이었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농약중독연구소’는 천안병원과 순천향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역최초 신장이식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주목을 받았던 신장내과 홍세용 교수가 이끌고 있는 농약중독연구소는 1994년 농촌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맹독성 농약인 파라quat 중독 치료법을 학회에 발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전무했던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천안병원에는 농약을 음독한 환자들이 한해 평균 600여 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매년 기적처럼 되찾는 생명도 수백에 이른다. 홍 교수가 1996년 문을 연 농약중독연구소는 농약을 비롯해 각종 독성물질 중독을 다루며, 시판되는 모든 농약과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 자



농약중독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홍세용 교수 (2001년)



노발리스트익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안병원 주요 성과

세계최초	농약중독, 카드몸치료법 개발
전국최초	다양한 위암수술법 개발 및 도입 대상포진클리닉 운영 시작 3차원 흉강경수술 시작 신생아 운동발달평가(TMP) 시작 개흉 없는 오목가슴 교정수술 시작(국제특허) 새가슴 교정기 치료 시작(국제특허) U-원격영상진료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차세대 소아응급실 개발 운영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 운영 간암 고주파열치료술 시작 자연개구부를 통한 무창상수술(NOTES) 시작
지방최초	모자보건센터 건립 운영 현대식 소화기병센터 운영
중부최초	뇌혈관 내 혈전용해술 시작 복강경수술 시작 고위험임신클리닉 개설 운영 조기폐암클리닉 개설 운영
충청최초	폐절제수술 시작 심장수술 시작 유방즉시복원술 시작 뇌, 척추수술 시작 경피적 척추성형술 시작 두경부 종양, 이하선 종양 수술 시작 수지절합 및 미세수술 시작 각막이식수술 시작 신장이식수술 시작 뇌사자 판정 및 장기이식기관 선정 혈액투석실, 복막투석실 운영 부인종양클리닉 개설 운영 관상동맥중재수술 시작 소아호흡기알레르기클리닉 개설 운영 소화기암 내시경수술 시작 형광기관지내시경 도입,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작 신생아 집중치료 충청지역센터 운영
주요 연구성과	농약중독치료 지침서 발간(1998) 정상배변유도형 인공항문세트 개발(2001)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발간(2002) 내시경적 십이지장, 유두부 괄약근 절개술용 절개도 개발(2004) 새가슴 교정기 및 치료법 특허 등록(2006) 광투시내시경 오목가슴 수술법 개발 및 특허 등록(2006) 원형문합기를 이용한 위십이지장문합술 개발(2007) 제초제중독치료지침서 발간(2010) 소화기 내시경 아틀라스 발간(2010) 카드몸 중독 치료법 개발(2011) 오목가슴 수술 2중 압착고정장치 개발 및 특허 등록(2012) 디지털 새가슴교정기 개발 상용화(2012)



1982년 개원 직후의 천안병원 모습



1988년 충청지역 처음으로 장기이식수술을 성공하고, 1993년 충청권 유일 뇌사자 장기 이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료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대책이 없던 중급속 카드뎀 중독 치료법도 찾아내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오목가슴/새가슴 교정클리닉'

또 하나의 순천향 간판 클리닉이 천안병원에 등지를 들고 있다. 선천성 가슴기형을 가슴을 열지 않고 완벽하게 교정하는 흉부외과의 '오목가슴/새가슴 교정클리닉'이다. 이승진/이석열 교수가 운영하는 클리닉은 오목가슴 교정에 사용되는 '광투시내시경'과 2중압착교정장치, 새가슴 교정에 사용하는 '디지털 교정기'를 개발해 국내외 특허도 출원 등록했다. 세계 최고인 클리닉은 다양한 교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도는 물론 교정 성공률도 100%를 자랑한다.

중부권 암치료 거점 병원

천안병원의 암 진단 및 치료분야의 실력과 인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이다. 천안병원은 2010년 외래진료관 동편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암센터를 세우고, 노발리스 티엑스(Novalis TX)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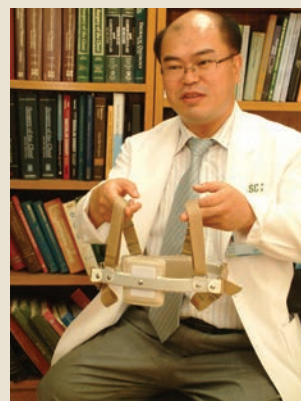
도입했다. 당시 미국 FDA가 공인한 세계 최고의 방사선암치료기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입했는데 모든 최신 방사선치료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가동 1년만에 암치료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암치료 영역에 노발리스 티엑스가 있다면, 암진단 영역에는 128슬라이스PET-CT가 가장 으뜸. 2012년 도입해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천안병원은 암진단에서 치료까지 최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갑상선암환자 치료 전문병실인 '옥소치료실'도 2실 조성해 부족함이 없는 암치료환경을 갖추었다. 암전문 교수들은 이미 높은 실력으로 국제적인 명성이 자자하다. 교수들은 또 다학제 시스템이라는 탄탄한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해 암환자에게 최상의 치료결과를 제공한다. 천안병원은 현재 중부권 암치료 거점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응급의료, 미숙아 치료의 한 획을 긋다

암 치료뿐만 아니라 천안병원의 응급환자 진료시스템도 남다르다. 전국 최초로 차세대소아응급센터를 개설해 성인과 소아 응급환자를 완전히 구분해 전문화된 구역에서 진료하고, 신생아집중



신생아집중치료실 모습



이석열 교수가 자신이 고안한 새가슴교정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2001년)



2018년 완공 예정인 천안 제2병원 모습



2012년 노발리스 티엑스 1만건 돌파



보건복지부 지정 차세대소아응급실 모습

치료 충청지역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응급환자와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소아 응급의료센터는 또 혈관 검사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256채널CT'도 갖추고 있다. 심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해 심장정지, 뇌졸중 환자 치료 효율을 극대화시켰다.

글로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 선도하는 병원 만든다

천안병원은 2014년 현재 최첨단 미래형 진료시스템을 갖춘 1500병상의 초대형 제2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설계단계로 넘어 실시인가 및 건축설계 단계를 지나고 있다. 천안병원은 제2병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고 있다. 미국 북쪽 끝 미네소타주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로체스터가 메이요클리닉이 들어선 후 일약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제2병원은 기존병원 인접부지에 들어서며, 건립 후엔 기존병원과 주변시설을 통합해 '바이오 메디컬 스퀘어'가 형성될 예정이다. 바

이문수 천안병원 병원장

“중부권 500만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을 이룰 터”



순천향 창립 40주년을 자축하며, 순천향인의 한사람으로서 벅찬 자부심을 느낍니다. 순천향 40년 역사는 국가보건의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이뤄낸 값진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공급이 부족한 나라의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했던 설립자의 뜻에 따라 순천향 4개 병원은 모두 의료취약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병원들은 지역사회의 큰 관심

과 기대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동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회적 책임을 훌륭히 감당해내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천안병원 역시 32년 전 의료서비스가 매우 열악했던 충청지역 장항선 일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원하였습니다. 비록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지만 충청지역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이었으며, 훌륭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천안병원은 개원초기부터 신장이식, 심장수술, 뇌수술, 암수술 등 고난도 치료들을 모두 성공으로 이끌며 지역사회의 의료 갈증과 불만을 일소시켰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사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해 중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났습니다.

천안병원은 2014년 현재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국의 메이요클리닉', '제2병원' 건립입니다. 천안병원 1700여 교직원들은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창조적인 역량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2병원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500만 중부권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메이요클리닉'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오 메디컬 스퀘어란 제2병원의 최첨단 초대형 의료 인프라 위에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힘과 기능을 더하고, 개원을 앞두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의생명연구원(SIMS)의 연구역량을 연계해서 진료-교육-연구가 함께 공존하는 삼위일체의 의료생명허브다. 천안병원이 한국의 메이요클리닉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가족들의 당찬 비전이 중부권 지역주민들의 큰 기대감 속에서 한껏 열거되고 있다. 

구미병원 발전사

공단지역 인술 35년, 산업보건관리의 중추 병원으로 성장

최첨단 전자, 섬유산업의 요람인 구미산업기지 조성과 함께 '인간 사랑'정신을 바탕으로 구미수출 산업공단 중심부에 대지 4,578평을 확보했다. 79년 5월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가받아 9월 건평 2,969평에 지하층 지상6층 건물을 완공, 1979년 9월 26일 경북 서북부 지역 최대 규모인 250병상 종합병원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정리 _ 편집부

근대화와 구미산업공단 중심에서의 출범

1970년대 구미공단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 전초기지로서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였다. 돈을 벌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들이 몰려왔고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볼만한 마땅한 병원 하나가 없

개원 초기 구미병원 전경





77년 구미병착공식에 참석한 서석조 박사와 김정옥 여사가 첫삽을 뜨며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80년대 무의촌에서 열린 의료봉사 장면

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고(故) 서석조 박사는 김종필 총리로부터공단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필 병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것이 구미병원의 모태가 되었다. 개원식에는 김정완 병원장을 비롯 고 서석조 이사장, 홍성철 보건사회부장관, 지역인사와 의료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역사

적인 출발을 축하했다.

의료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곳에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 출현은 병원이용이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고 몰려드는 환자에 부족한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

집단산업보건관리연구소 설립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앞장

의학연구, 진료, 영세민구호사업, 공단근로자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산업의학을 특성화분야로 정한 병원은 83년 특수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88년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되면서 집단산업보건관리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근로자 건강을 위한 산업보건 사업을 담당하기 어려웠던 영세중소기업들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산업보건 전문기관에서 집단보건관리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아래 1992년 한일기술협력사업단(JIKA)의 도움을 받아 집단산업보건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의학 특화 병원으로서 전문적인 진료와 연구를 했다.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사업장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실천했다. 집단산업 보건관리모델 개발에 주력했으며 구미공단 발전의 초석인 근로자의 보건 증진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구미 발전과 더불어 신관 건물이 증축됐다. 건강관리과, 외래 진료실, 병실 공간이 마련되어 1992년 450병상으로 성장했다. 1994년에는 각종 성인병 예방을 목적으로 종합건강검진센터가 만들어졌다.





8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무료진료는 MBC의료봉사대상 본상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00년 서박사의 뜻을 기려 건립된 향설관에는 무균개념의 중앙수술실이 마련됐다.

베이비붐 시대 출생아 누적 8만명, '순천향베이비' 양산

개원 이래 입원환자 400만명, 외래환자 1000만명, 신생아 출산 8만명 등 지역 병원으로서는 보기드문 의료실적을 거뒀다. 특히 인구 42만 도시에서 신생아 출산 8만명은 이례적이다.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졌다. 1986년 12월 모자보건 센터가 설치되어 대구와 경북권역 모자보건 사업의 중심 역할을 했다. 많을 때는 하루 30여명의 신생아가 출생 했으니 분만실을 '아기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8~90년대 산부인과 명성 그대로 현재 구미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중 '순천향베이비'는 20여명. 경북지역 대표 분만실로 꼽히면서 많은 신생아를 출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출산과 더불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도 많았다. 1991년 응급의료 병원으로 지정된 가운데 병실 절반이 관련 환자로 진료실과 수술실, 물리치료실이 풀가동 됐다.

슬기로운 위기 극복, 투자 활성화 대책

90년대 후반 IMF를 맞으면서 구미병원도 역시 위기를 맞았다. 섬유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도산하는 기업이 늘면서 그 여파가 병원에 엄습해 왔다. 하지만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토요일 오후진료, 공휴일 오전진료를 실시했으며 실직자들을 위한 진료혜택제도, 친절하고 신뢰받는 병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직원 대상으로 3-S(smile/see/say)운동을 전개했다. 전화접수제도과 홈페이지 개설, 의약분업으로 인한 병원이용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전자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2000년에는 '의료환경 개선의 해'로 정하여 중환자실을 확장 이

전하였으며 그해 12월 향설 서석조 박사의 뜻을 기려 향설관을 건립했다. 향설관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공간의 모자진료센터가 개관했으며 무균개념의 현대식 중앙수술실을 마련,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진료부문 전문화 및 특성화 센터 강화

사회약자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성향을 갖고 의료와 관련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지역에서 새롭게 시도된 진료와 수술, 치료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센터중심의 전문성'을 목표로 삼았다. 신속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센터와 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암검진·성인병검진·종합검진이 가능한 종합건강증진센터, 소화기질환의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센터 특성화와 진료부문의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개설된 뇌신경질환센터는 뇌신경질환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진료로 지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진료부문에서는 외과의 갑상선내시경이 대구, 경북권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갑상선클리닉과 더불어 유방클리닉도 환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정형외과 관절경클리닉, 직업환경의학과의 직업병진료,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심장클리닉, 알러지클리닉, 재활의학과 뇌졸중재활클리닉 등 교수별 전문진료 분야가 세분화 되어 보다 전문화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심혈관조영기와 2011년 PET-CT를 지역 최초로 도입해 진단과 치료에 만전을 가하며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했다.

나눔 실천 30년, 사회공헌 의료기관 자리매김

1984년 11월에 의사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창단하여 매월 1회씩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무료이동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원한 신경외과 교수가 초대 단장으로 선출되어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봉사단원은 기금을 모아 불우이웃을 도왔다. 무의촌 봉사 활동으로 시작된 봉사는 소외된 빈곤계층과 의료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됐으며 2001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실시되고 있다. '참사랑 의료봉사를 몸소 실천한 의료봉사단은 2006년 인류사랑을 실천하고자 베트남으로 첫 해외의료봉사를 떠나기도 했다. 창단 이래 현재까지 390차, 총 29,40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가 이뤄졌고 보건교육(치아건강관리, 안과질환 예방, 부인과 질환)사업

과 경로위안잔치, 불우이웃 성금지원, 사랑의 무료개안술을 지속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공로로 2002년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보령의료봉사상'과 2004년 MBC의료봉사대상 본상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아 명실공히 사회공헌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개원 35주년, 중장년기를 맞은 구미병원이 이제는 넘치는 에너지로 그간 이뤄왔던 신뢰를 주축으로 활기찬 미래를 펼치고자 한다. 또 한번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객 중심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지역사회 의 의료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더욱 특성화·전문화 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SCH**



- ① 지역 최초로 심혈관조영기가 도입되어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 ②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된 인공신장실
- ③ 직업병 관련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써, 유해물질과 의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환경보건센터를 개소했다.

박래경 구미병원 병원장

35년 역사와 저력으로 새로운 순천향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지난 40년간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외길을 걸어온 순천향의 창립 4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료사각지대였던 천안과 구미 등 중소도시에 병원을 설립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나라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사랑'이라는 순천향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우리 순천향의 의지이자 철학이었습니다.

1979년 산업인력과 지역민 건강을 위해 250병상으로 개원한 구미병원은 현재 23개 진료과, 70여명의 우수 교수진과 600여명의 진료지원인력으로 경북 중서부권 최고의 의료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각종 정부 사업을 통해 지역 의료선진화 사업을 선도하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봉사로 42만 구미시민의 건강수호자로 함께해온 35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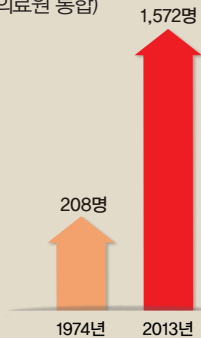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도 그늘진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 했듯이 환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정신은 다시금 헌신과 봉사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창립 40주년이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다른 40년을 약속하고 100년을 기약한다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병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미병원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지혜와 저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도전을 극복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료서비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리며 변화와 혁신으로 '순천향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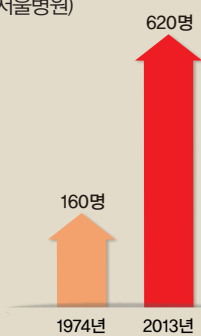
“순천향의 미래와 희망을 손글씨로 담았습니다”

서울병원

순천향 40년 의사 수의 변화
(의료원 통합) 1,57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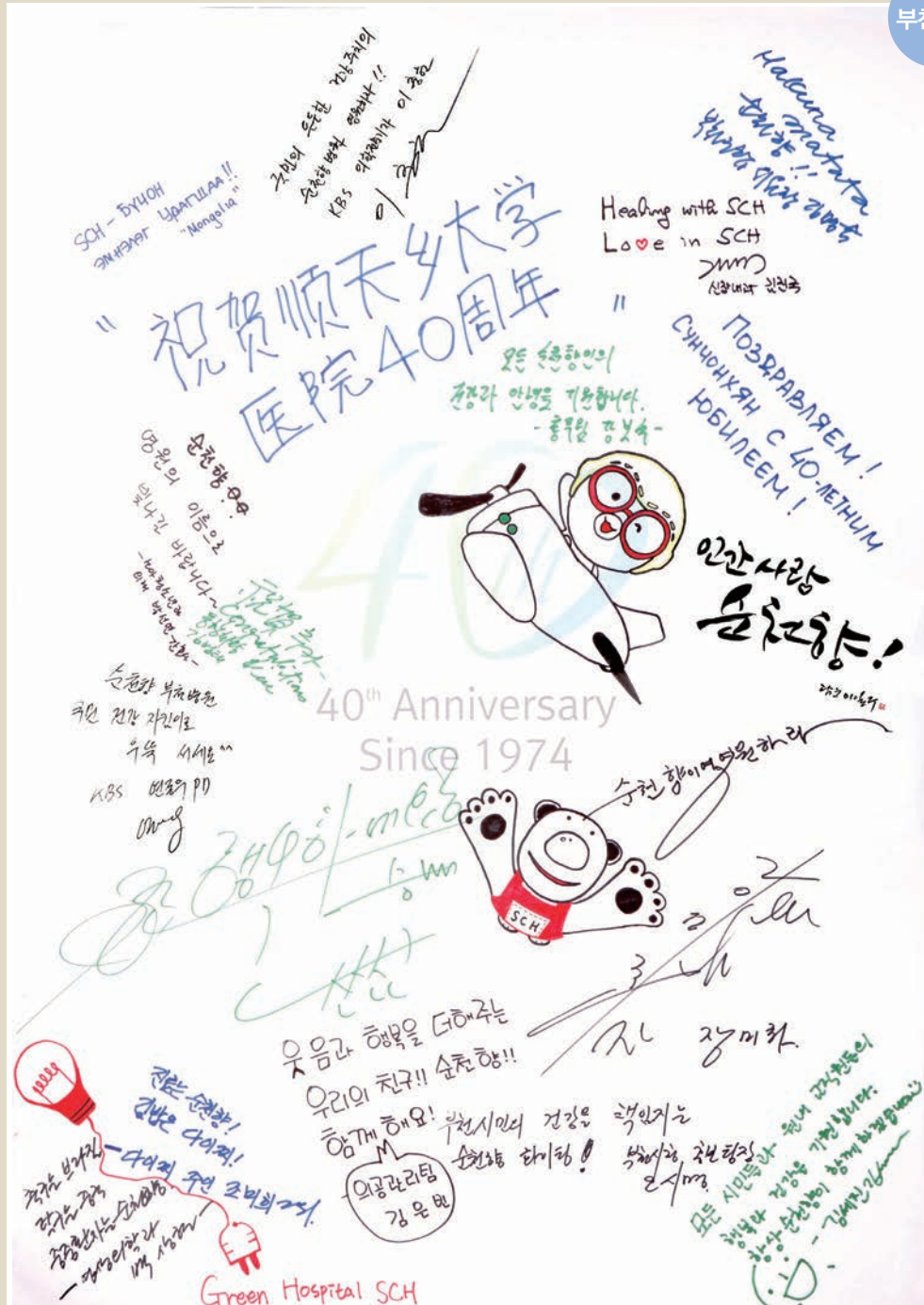


순천향 40년 간호사 수의 변화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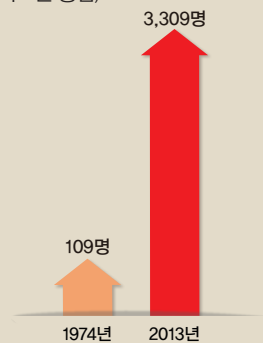
[illegible]

각계각층으로부터 장년 40돌을 맞은 순천향에 바라는 말과 미래 희망을 들었습니다.
 순천향의 현재와 미래는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좌우에는 순천향의 지난 40년의 변화를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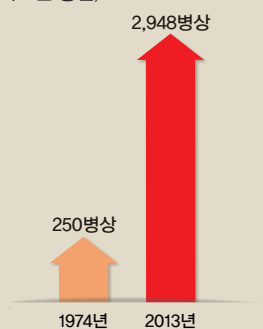
부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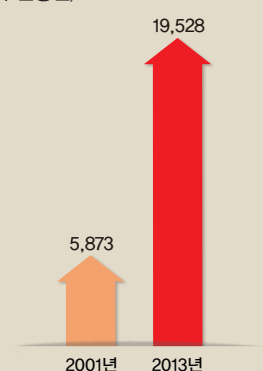
순천향 40년 직원 수의 변화
(의료원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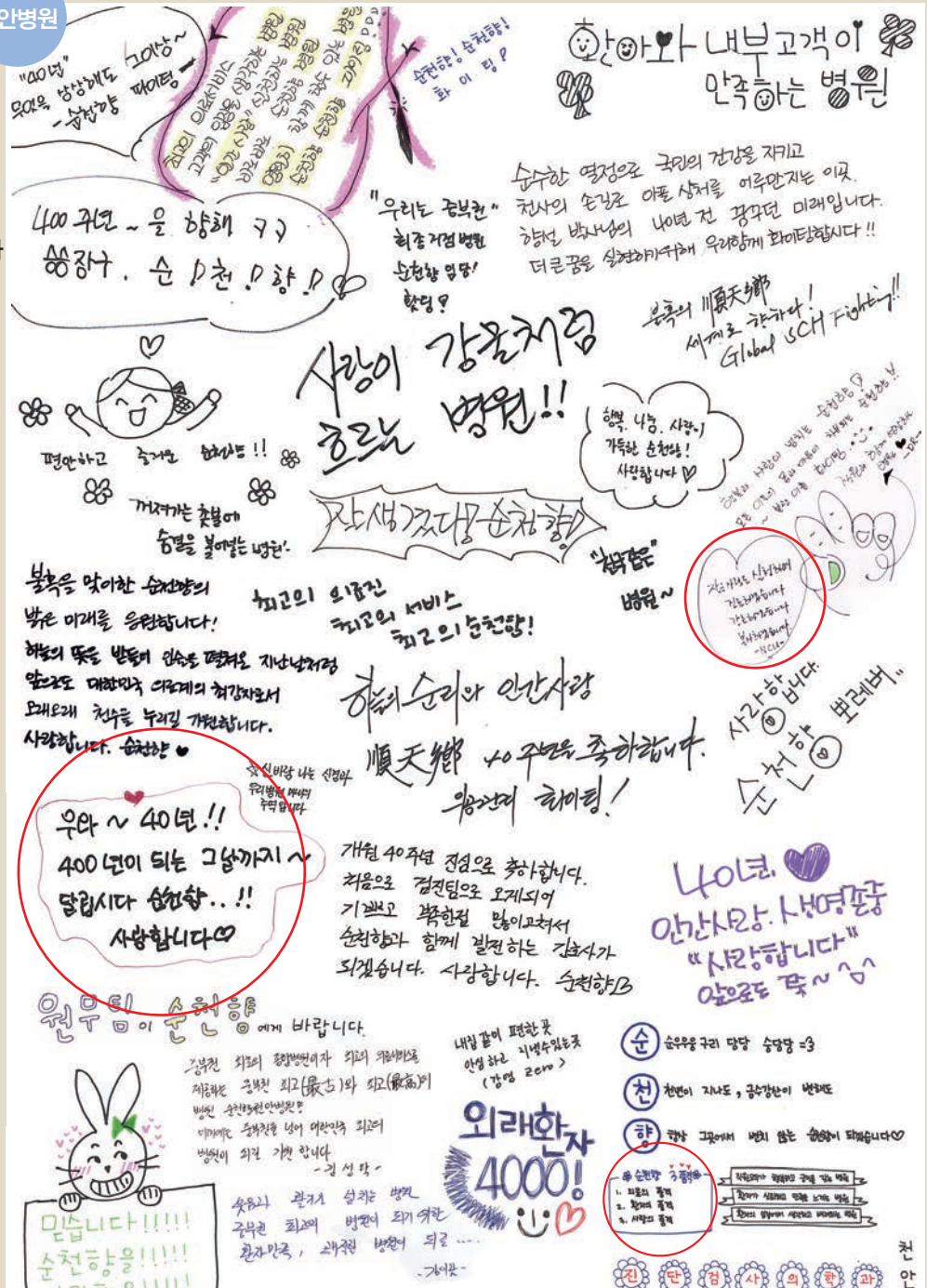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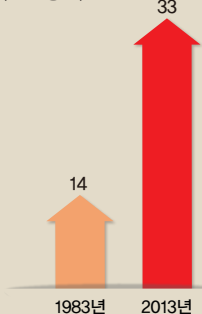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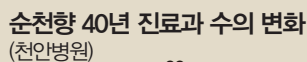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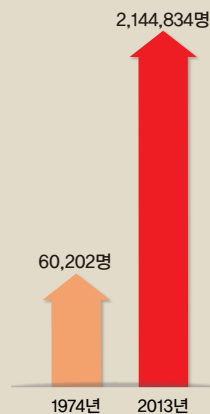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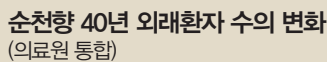


순천향 40년 병상 수의 변화
(의료원 통합)



순천향 40년 수술건수의 변화
(부천병원)





중년의 삶을 살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눈앞에 핸드폰이나 열쇠를 놓고도 찾게 됩니다. 특히 핸드폰을 못 찾아서 집전화로 번호를 눌러서 소리를 듣고 종종 찾습니다. 외출 했다가 가스 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 부랴부랴 가던 길을 돌아서 집으로 되돌아오면 가스불은 꺼진 채 잠전히 있습니다.

시골집 텃밭에서 일하다가 호미를 어디에 뒀는지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렇게 중년의 삶은 건망증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망증 때문에 제 인생이 훨씬 편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에 따라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야 할 일들을 적당히 망각함으로써 심신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건망증을 긍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건망증이란, 경험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느 시기 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드문드문 기억하기도 하는 기억 장애를 말합니다.

8년 전에 겪은 내 인생의 일대사건도 이 건망증 때문에 극복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힘든 고비를 이겨내려고 사투를 벌이던 그 시절에 건망증이라는 정신적 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머리가 돌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숨쉬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살려준 건망증이란 단어가 새삼 고맙다는 생각조차 하게 됩니다. 사십대 초반에 만난 그 친구를 정말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이 사채를 얻어 쓰게 되어 못 갚게 됨으로써 장기라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생명을 일단 살리고 보자는 그 친구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던 나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인 돈을 급전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사채업자라는 여인도 모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짜고치는 고스톱에 걸려던 나는 정말 뒤통수를 한방 맞은 기분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사기행각이 들통 나자 두 사람은 도망을 쳤고 기소중지에 상태였던 그 친구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다가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만난 그 친구의 험악한 물결과 친구 어머니가 살아생전 설거지라도 해서 자식의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해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돈을 갚는커녕 다시 달아나 버렸습니다. 돈 잃고 친구 잃은 그 슬픔을 극복하느라 수년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있던 나는 어린자식이 “엄마, 배고파요” 하는 소리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속에서 차츰 흐려지는 건망증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당시의 일들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프고 무섭던 일들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방금 낳은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알기에 절대로 자식을 낳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몇 년 후에는 또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도 건망증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월호 사건으로 자식 잃은 부모님들의 고통도 세월이 가면 어느 때인가는 잊어질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래 간직하는 것이 건강에 참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건망증 때문에 삶이 편안해 졌습니다

글_ 은유(작가) <올드걸의 시집> 저자

암 막고 심장 지켜주는 호두, 깨 먹지 말고 익혀 드세요



글_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꽃보다 누나’란 케이블방송 프로에서 탤런트 김희애씨는 “공항에 무엇을 챙겨 왔느냐”는 질문에 뜻밖에도 김치·김·고추장이 아닌 “견과류 조림을 해왔다”고 대답했다. 담당 PD가 “견과류를 왜 먹어야 하느냐”고 되묻자 김씨는 “피부에도 좋고, 노화방지에 좋고…”라고 예찬했다. 방송이 나간 뒤 견과류(堅果類) 판매가 급증했다고 한다. 견과류는 호두·넙밤·은행·잣·땅콩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을 총칭한다. 견과류가 피부 건강에 이로울까? 김희애씨처럼 견과류 열치볶음을 즐겨 먹는 것이 동안(童顔) 피부의 비결일까?

견과류가 피부 건강(특히 건성 피부)에 유익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적당량 섭취하면 피부의 유분과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견과류엔 비타민 C와 E 등 피부 노화 억제(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 니아신(비타민 B군의 일종)·필수 지방도 부스럼·종기의 예방·치유에 유익하다. 그러나 견과류는 지성 피부인 사람에겐 권장되지 않는다. 과도한 섭취는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여드름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조상들은 견과류인 부럼을 ‘딱’ 하고 깨물면 치아가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기산적을 ‘이 굳히기 산적(固齒炙)’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부럼을 무리하게 깨물다간 오히려 치아가 상한다. 이 굳히기를 하다가 치아가 빠지면 우유에 담아 즉시 치과의사에게 달려가야 한다.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이영은 교수는 “부럼(견과류)은 하루 한 줌 가량이 적당량”이며 “부럼의 대표 격인 호두엔 멜라토닌이 풍부해 불면증 완화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 호두를 가볍게 구우면 견과류 특유의 향이 살아난다. 호두를 쿠키 팬에 놓고 176도에서 8~10분간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용기에 담아 5~6분 돌리거나(중·고열로 세팅하고 2분마다 뒤집어준다), 프라이팬에 놓고 자주 저으면서 중·고열로 3~5분 가열하면 구운 호두가 된다. 갠 호두를



끓는 물에 넣은 뒤 불을 끄고 2분간 뒹다 물기를 빼면 호두 데치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만든 호두는 심장 건강과 암 예방에 이롭다. 미국 프로비던스 심장·혈관연구소 제임스 베커먼(심장 전문의) 박사는 “호두엔 오메가-3 지방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ALA)이 1온스(약 28g)당 약 2.5g 함유돼 있으며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며 “심혈관 질환은 물론 전립샘암, 여성의 2형(성인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미국 마셜대학 일레인 하드먼 교수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치명적인 심장 발작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ALA 함유 식품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두는 주로 9~11월에 생산되며 호두나무를 잡아 흔들어 떨어뜨리는 기계를 이용해 열매를 따낸다. 미국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데니스 밸린트 대표는 “호두나무는 나무를 심은 후 약 5~7년이 지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후 100년간 계속 열매를 맺는다”며 “상업용 호두 품종은 30여 개에 달하며 잉글리시 월넛 또는 페르시안 월넛에서 개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폐용기에 넣어 습도가 낮고 시원한 곳에 두는 것이 최선의 호두 보관법이다. 햇빛과는 멀리할수록 좋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6개월, 냉동실에 두면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조선 최고의 예인, 황진이를 사랑한 남자들

황진이와 지족선사 · 서경덕

글_ 홍지화 (소설가)

사망한 지 5백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후대인에게 기억되는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 신분이 높은 남성네들 앞에서 춤을 추고 술을 따르던 예쁘기만 한 기생이기보다는, 한 여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선구자였기에 우리는 지금도 그녀를 조선 최고의 예인(藝人)으로 칭송한다. 그녀의 작품들 역시 문학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민 신분의 기녀, 게다가 뿌리 깊은 남존여비사상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에서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에 대해 알려진 진실은 별로 없다. 많은 일화가 전해지긴 하지만, 대부분 왜곡된 것들이다. 다만 그 시절 그녀와 교류했던 유명인들의 짙막한 기록들을 통해서나마 그녀의 자유롭고 불꽃같은 삶을 추측할 뿐이다. 황진이 때문에 울고 웃었던 남자들이 한 둘이 아니었지만, 특히 두 사내와의 로맨스가 유명하다.



30년 도를 닦은 지족선사, 하룻밤에 무너지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과 조선 최고의 여류문인 허난설헌의 아버지였던 허엽이 황진이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그대는 어떤 삶을 살길 바라는가?”

그러자 황진이가 단호하게 잘라 대답했단다. “소녀는 오로지 인간이고자 합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을 상대로 술과 재주를 팔았지만, 결코 영혼마저 내주지 않았고 되레 허식 투성이 양반사회를 신랄하게 조롱했던 기녀 황진이. 재색을 겸비한 그녀의 요염과 발칙함은 당시 양반들에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로망’이었다. 당시 그들은 황진이와 하룻밤을 보낸 게 웬만한 벼슬자리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다고 한다.

황진이의 거침없고 도발적인 성격은 지족선사와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송도에서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던 지족선사도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30년을 닦은 수양이 하룻밤에 말짱 도루묵이 돼버렸다.

송도 지족암에 30년 동안 벽만 보고 도를 닦는 스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한 황진이는 그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황진이는 하얀 소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차림새로 지족선사 앞에 나타났다.

“스님, 저는 오갈 데 없는 청상과부입니다. 스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리 찾아뵈었나이다. 소녀가 깨달음을 얻

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요.”

제아무리 30년 도를 닦아 세상이치를 깨달은 수도자라 하더라도 아닌 밤중에 아리따운 미색의 여인이 그리 처량하게 서있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랴. 차가운 빗줄기에 그냥 돌려보내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우선 안으로 들였다. 흠뻑 젖은 저고리너머로 살갗빛 속살이 흰히 드러나고, 훑벌에 아른거리는 여인의 아리따운 자태는 30년 경력의 수도자의 마음을 흔들기에 넘치도록 충분했다. 관세음보살을 외워보지만 이미 지족선사는 욕정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이제 곧 열반의 경지에 오르려던 지족선사였건만 그는 결국 그렇게 무너졌다. 그는 황진이의 뒷에 걸려 그날 밤 파계하고야 말았다.

제 목적을 달성한 황진이는 통쾌한 마음으로 암자를 빠져 나오지만, 사랑의 포로가 된 지족선사는 황진이를 찾아 염주도, 목탁도 다 내팽개친 채 반미치광이가 되어 송도거리를 밤낮으로 헤매 다녔다고 한다. 후에 황진이는 「식소록」, 「조아취언」에서 30년 면벽의 지족선사를 망치게 한 게 바로 자신이었다며 깊이 후회했다.

황진이가 진정 사모했던 한 남자, 화담 서경덕

다수의 연인이어야 하는 기녀의 신분이었지만 지조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황진이에게도 딱 한 사람,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픈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조선의 대학자이며 주기론의 아버지인 화담 서경덕.

30년을 수련한 생불 지족선사도 한 방에 무너뜨린 황진이의 다음 목표물은 덕망과 학식이 조선 제일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화담 서경덕이었다. 그녀는 서경덕의 인품과 학식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녀가 서경덕을 어떻게 유혹했는지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 가지는 지족선사에게 했던 것처럼 비를 흠뻑 맞고 선생의 숙소로 찾아가 하룻밤 쉬어가겠노라 졸랐는데 선생은 유혹에 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젖은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고 한다. 선생을 시험하려 한 자신이 되레 부끄러웠던 황진이는 며칠 후 다시 찾아가 제자로 삼아줄 것을 정중히 청했다.

또 다른 설은 황진이가 화담의 정자에 놀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했다. 서경덕은 한 채박에 없는 이불을 황진이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윗목에 앉아 책을 읽었다. 황진이는 밤새 아픈 척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지만 의연하게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책상 앞에 꼴꿎이 앉아 책을 읽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는 윗목에 조그마한 포대기를 단정히 개어놓고서 어젯밤과 같이 책을 읽고 있었다. 제 시험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그녀는 부끄러워 도망치듯 나와서 며칠 후 그를 다시 찾아가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송도에는 삼절이 있다는데 혹 그것을 아십니까? 첫째는 박연폭포요, 둘째는 선생님이시고 셋째는 저 진이입니다.”

그러자 화담이 깔깔 웃고는 화답했다.

“비록 아름다운 선학이나 또한 진지이니라.”

그녀는 자신을 제자로 삼아줄 것을 간청했고, 서경덕은 이를 승낙해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 됐다. 후에 그녀는 그의 인품과 학식을 다음과 같이 감탄하였다.

“지족선사는 30년 면벽수련에도 내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스승님께서는 오랜 시절 나와 함께 하셨지만 끝까지 나에게 이르지 않았으니 진정 성인이로다.”

서경덕의 사망 후 황진이는 스승에 대한 그리움에 그의 발결음이 닿았던 곳이라면 어디든 두루 다녔다고 한다. 서경덕 또한 황진이를 마음에 두었는지, 그저 단순히 재주 있는 제자로 아꼈는지 그 마음을 알 리 없다. 훗날 황진이는 그에 대한 그리움에 다음 시를 남겼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을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나니 옛 물이 있을 손가/ 인걸도 이와 같아 가고 아니 오노 매라/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라/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손가/ 녹수도 청산이 그리워 울어 애어 가는가.〉 SCH





기발함과 유머가 가득한 뉴코리안 다이닝 정식당 JUNGSIK

글_ 손문선(구루메 빠라디) 저자 사진_ 홍인근(튜브스튜디오)

신사동에 위치한 정식당은 기발함과 유머가 가득하며 뜨거운 열정이 숨 쉬는 뉴코리안 스타일의 레스토랑이다. 정식당의 음식은 좋은 식자재의 선택부터 표현 능력, 조화된 맛까지 모든 것이 훌륭하다. 그동안 한식의 세계화를 추구하다가 쓴 맛을 본 많은 레스토랑과 차별되는 것은 음식이 참 맛있다는 점이다. 단지 독창성이나 겉모양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반할만한 훌륭한 맛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

육류와 생선 등 다양한 기법을 응용해 맛있게 만든 독창적인 메인 요리도 돋보이지만, 한식을 표방하는



만큼 특히 맛깔스러운 밥 요리가 인상적이다. 그중에서도 성게알 비빔밥은 이집의 시그니처 메뉴로 인기가 높다. 고소한 김소스와 아삭한 채소, 바삭하게 튀긴 조, 성게 알을 넣어 비벼 먹는데 입안에서 툭툭 튀는 식감과 산뜻한 감칠맛에 감동이 밀려온다.

세프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창작 메뉴들로 구성된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샐러드, 라이스엔 누들, 메인, 디저트 순으로 제공되는데 메뉴판이 참 독특하다. 뉴욕의 정식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각 파트별로 선택의 폭이 꽤 넓어 스스로 메뉴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놀라운 닭', '합천에 눈이 내리면', '비빔' 등 메뉴 이름도 재미있다. 레시피가 기발하고 새롭기 때문에 서빙 직원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메뉴를 정하는 것이 이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라 하겠다.

단체손님의 경우 미리 메뉴판을 메일로 받아 원하는 요리를 정하고 가는 편이 좋다.

식당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깔끔하다. 한 면 전체가 통 유리창이라 건물 밖의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 잎으로 뒤덮여 계절의 흐름을 즐길 수 있다. 찾는 손님은 젊은 층부터 나이드신 분까지 폭이 넓은 편.

정식당에서 제일 욕심나는 부분은 와인과 음식에 대해 완벽하리만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서빙 직원들이다. 업어가고 싶을 만큼 맘에 쏙 드는 서빙 매너에 탐이 난다. 주방에서 공들여 만든 음식을 제대로 대접해주기에 비즈니스 접대나 중요한 모임을 갖기에도 좋은 곳이다. 

숲의 정기로 심신을 건강하게 ‘장성 치유의 숲’

글 · 사진_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올해 걷기 테마인 ‘숲길’의 두 번째 코스는 전남 장성 치유의 숲인 편백나무 숲이다. 측령산 자락에 위치한 이 곳은 문학평론가 임종국 선생님이 후손들을 위해 1956년부터 약 20년간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심어 만든 숲이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장성 치유의 숲으로 조성됐다. 이 곳에는 이름도 예쁜 4개의 걷기 코스가 있다. 바로 숲내음숲길(2.2km), 산소숲길(1.9km), 건강숲길(2.9km), 하늘숲길(2.7km)이다. 어느 숲길을 선택해도 후회는 없다.



피톤치드 향이 풍부한 숲내음숲길

편도 3시간 30분의 거리를 하루에 다녀오고자 아침부터 서둘러 서해안 고속도로로 향했다. 우리 부부는 휴게소에서 잠시 쉬며 커피 한잔도 하고, 운전도 교대해가며 무사히 장성 진입에 성공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자마자 시골의 한적함이 느껴진다. 정적인 풍경 속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며 농사 준비에 한창인 농부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추암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챙겨 치유의 숲 안내센터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길가에 노란 유채꽃들이 활짝 웃으며 우리 부부의 방문을 환영한다. 어느 집엔가 수줍어서 붉게 물든 동백나무 두 송이가 피었다. 그 모습이 참 소담스럽다. 콘크리트길을 벗어나 본격적인 산길로 들어서니 길 위에 떨어진 벚꽃이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 하다.

안내센터 앞에서 오늘의 일정을 구상해 본다. 우리는 2개의 코스로 나뉘어 숲내음숲길 중 편백나무 가득한 숲길을 먼저 택했다. 숲길로 들어서자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곧게 뻗은 편백나무들이 나란히 늘어섰다. 그 위엄에 나도 모르게 감탄을 연발한다. 피톤치드 향이 물씬 풍기는 숲 내음을 맡으니 세상 근심 모두 잊은 신선이 따로 없다. 편백나무 사이로 층층 나무들의 연초록 푸른 잎이 햇빛에 반짝여 더욱 아름다운 모습이다.





녹음과 화려한 봄꽃의 양상블

산새소리를 들으며 다시 안내센터 방향으로 걷는다. 안내센터 주변에는 봄꽃이 만개해 찾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고개 속인 검붉은 할미꽃, 빨간 복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린 금낭화, 봄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는 제비꽃, 노란 민들레와 불면 날아갈 듯 한 동그란 민들레 포자까지 화사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또 다른 숲내음숲길 코스로 향하자 철쭉이 한창이다. 돌계단을 내려가니 작은 나무 조각들을 가지런히 깔아 만든 산책로가 나온다. 당장이라도 맨발로 걸어보고 싶다. 여러 갈래로 갈라진 숲길을 걸으니 아까와 또 다른 맛이 느껴진다. 지난 가을 낙엽 위에 떨어진 분홍 진달래 꽃잎은 두 계절의 공존을 보여주는 것 같다. 갈라진 다른 오솔길은 푸르른 풀로 만든 초록색 카펫길이다.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추암마을로 발길을 돌린다. 올라올 때와는 다른 초록 숲이 우거진 임도길이다. 오전에 잠시 내린 빗방울들이 나뭇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영롱하게 반짝인다. 길가의 작은 웅덩이는 울창이로 가득하다. 주차장에 다다르자 눈앞에 축령산의 장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조금씩 채도와 명도를 달리한 초록 나뭇잎들의 아름다움은 붓을 들어 그림으로 남기고 싶은 모습이다.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귀음을 여운으로 남기며 숲내음숲길 일정을 마감한다. 

건강 TIP. 최근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 걷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근심을 잠시 잊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며 몸에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켜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필독서

DR.유의 진료실 영어회화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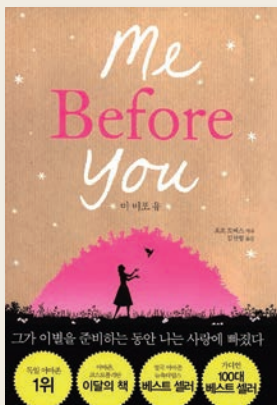
5개 국어를 구사하며 연간 10,000명 이상의 외국인 진료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한권의 책으로 내 화제다. 방송과 라디오, 예능과 시사 프로그램을 넘어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 의학과 교수가 최근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필독서를 발간한 것이다.

'DR. 유의 진료실 영어회화 매뉴얼'은 한손에 들어오는 포켓용 크기로 휴대가 쉽고 분량이 많지 않아 언제 든지 부담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 총 212페이지의 매뉴얼은 총7개 파트로 이해하기 쉽게 나뉘어져 있다. 1 장 증상에서부터 2장 검사, 3장 신체사정, 4장 처방, 5장 분야, 6장 수술, 7장 의료기기 설명에 이르기까지 상황별 주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의 장점은 한두 번만 익히면 바로 기억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 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전체적으로 질문 위주의 예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유병욱 교수는 '진료실에서 외국인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이 보통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직접 불편했던 점들을 겪으면서 매뉴얼 작성을 결심했고 의사 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 했다. DR.유의 진료실 영어회화 매뉴얼 구입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02-709-9158)나 (주)대한 의학서적(02-921-06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격은 15,000원

21세기적 삶의 질문

미 비포 유



조 모예스를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린 『미 비포 유』, 로맨스 특유의 재미와 가벼운 문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토록 감동적이고 울림을 주는 책은 만나보기 쉽지 않다. 조조 모예스는 끝없는 유 머와 가벼운 대화, 가족과 젊은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준다. 이 책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독자들의 가슴에 평생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구에게라도, 사랑에 메달렸든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든, 평생 사랑과 죽음의 무게 따위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이들에게라도 추천한다.

오만하리만큼 잘났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환자가 된 젊은 사업가, 월 트레이너, 괴팍하리만큼 독특한 패션 감각을 지닌 엉뚱하고 순진한 여자, 루이지 클라크, 맞닿을 것 하나 없이 다른 둘, 그들은 어떻게 만나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을까? 이책을 읽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증언은 이 소설이 평범한 로맨스 소설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훌쩍 뛰어넘어 묵직한 감동과 끝없는 울림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증명한다.

안락사(安樂死)라는 매우 민감한 21세기적 이슈를 다루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토론과 논쟁의 한 가운데에 이 소설이 놓여 있다. 과연 '죽음'은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조조 모예스는 런던에 있는 로열 홀로웨이 대학(RHBC)에서 공부했고, 시립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배웠다. 홍콩의 영자 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1년, 영국 「인디펜던트」에서 10여 년간 일했다. 그 후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전업 작가가 되었다.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녀는 『미 비포 유』로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가정의 달 앙코르공연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연극 '엄마를 부탁해'가 6월7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서 공연된다. 2010년 초연과 그해 10월 앙코르공연에 이어 세 번째로 막을 여는 '엄마를 부탁해'에는 손숙, 전무송, 예지원, 박윤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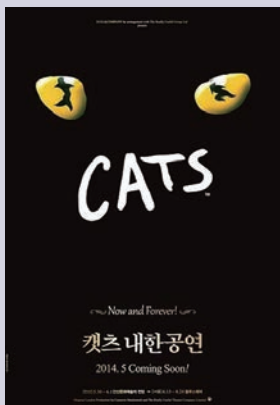
2010년 앙코르공연 이후 두 번째로 연극 '엄마를 부탁해'에 참여하는 배우 손숙은 "모든 배우와 스태프가 2014년 공연을 위해 재 구성됐다. 재공연보다는 새로운 공연에 참여하는 마음이 들어 설렌다. 이 작품은 부모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노부부'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다. 인생의 자침이 되는 작품이니 많이들 보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버지 역으로 함께하는 배우 전무송은 "국립극단을 나온 이후 30여년 만에 손숙 배우와 함께 공연하니 그 감회가 새롭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게 한 특별한 작품이다. 제가 느낀 이 감정을 관객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번 작품의 가장 큰 의미"라고 귀띔했다.

장녀 역을 맡은 예지원등 탄탄한 배우진과 더불어 2000년과 2005년 2회에 걸쳐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을 수상한 한진섭 연출가, 서숙진 무대디자이너, 민경수 조명디자이너 등 뮤지컬계 섭외 1순위 스태프들이 이 작품을 위해 뭉쳤다. 초연부터 이 작품과 함께했던 작가 고연옥이 함께 한다.

뮤지컬 '캣츠' 6년만의 내한공연

'캣츠'



'캣츠'는 국내에서 12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연령대를 초월해 한국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작품이다. 이번 6년 만의 내한공연도 국내 초연 이후 단 한 차례도 흥행 실패가 없었던 '캣츠'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유일한 내한공연인 '캣츠'는 세계적인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작곡)와 카메론 매킨토시(프로듀서)가 처음으로 탄생시킨 세기의 걸작이다. 뮤지컬 4대 명작 중 하나로 가슴을 휘젓는 주옥같은 명곡과 30여 마리의 고양이들을 통해 그려지는 다양한 인생군상들이 주는 깊이 있는 메시지, 환상적인 안무와 무대 예술로 감동을 선사하며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캣츠' 내한공연은 30년 넘게 이끌어 온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팀이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오디션을 통해 직접 배우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림 텀 터거 역의 얼 그레고리를 비롯해 올드 듀터러노미 역의 주앙 잭슨, 젤리로럼 역의 안젤라 킬리안 등 주요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은 이미 '캣츠' 무대를 통해 실력을 인정 받은 베테랑 배우들이다.

특히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메모리' 주인공 그리자벨라 역에 낙점된 배우 에린 코넬은 뮤지컬 '위키드' 엘파바 역을 맡은 경력이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가창력과 댄스 실력을 갖춘 양상블의 다이내믹한 안무가 오리지널 무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6월13일부터 서울 이태원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 출범...청년 창업가 육성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4월 15일 오전 교내에서 청년창업가 발굴 등을 위한 '창업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창업지원단은 정부의 창조경제 주역이 될 글로벌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순천향대는 '메디바이오-ICT분야'를 중점분야로 연구와 창업을 연계한 'Global Enterprise University'를 비전으로 대학 내의 연구실적 실용화와 글로벌 생존력을 전제로 한 아이템을 선정, 창업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향대 건학36주년 '명문대학 도약'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개교기념일을 하루 전일 지난 4월 1일 교내에서 '건학 36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10년, 20년, 30년 근속한 교수와 직원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부천병원 김형철 병원장(순천향대의대 1회)에게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을 수여했다.



또한 1억 500만원의 '밀알장학금'과 1,125만원의 '멘토링 장학금'을 재학생 112명과 24명에게 각각 전달했다. ㈜상훈유통 이현옥 회장은 1억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대학 구내식당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천원의 밥상' 이벤트를 진행했다.

재활의료기 창업한 대학생 우수빈씨

유수빈 순천향대 작업치료학과 학생(3학년)이 지난해 말 학교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 '쥬따뜻한 기술'을 창업했다. 교내 창업동아리에서 1년 가량 밤잠을 설치며 연구한 끝에 '이지플렉스'를 만든 주인공이다.



이지플렉스는 장애인들의 팔 운동을 돕는 기구이다. 현재 특허 출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순천향대 GTEP 학생들, 중기 수출계약 이끌어

순천향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단장 현인규 교수) 소속 학생들이 중소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과 판매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천향대 GTEP사업단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약 40만 달러(약 4억 4천만원)가 넘는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3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4만 1,990달러의 수출실적을 쌓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2014 홍콩 기프트 페어', '2014 상해 주얼리 쇼' 등 해외 전시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 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수출 성사를 위한 학생들의 실무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40주년, 토크 콘서트

4월 2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순천향대학교병원은 기념식과 토크 콘서트, 교직원 헌혈,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아침 7시 30분 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40주년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과 모범직원, 모범자원봉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지역주민과 환자 및 보호자, 순천향 가족이 함께한 '순천향의 마흔 살 이야기' 토크콘서트는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개그맨 서경석의 사회로 인기가수 바비킴, JK김동욱, BMK, 순천향 하모니 합창단 등이 열창해 1천여 명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이 개원 당시 의료진과 간호 및 행정 직원들에게 순천향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감사를 전했다.



동안 수술 술기와 척추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수술 외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척추 치료나 수술에 전념하다 보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는 환자의 마음이나 수술 후터, 혈전, 마취 과정 같은 환자의 실질적인 욕구에 대처하는 내용을 다뤘다.



우정라이온스, 퀴논시 백내장수술센터 지원 서울병원 우정라이온스클럽 협약

우정라이온스 클럽(354-D지구 회장 권영민)이 4월 7일 서울병원과 협약을 맺고 베트남 퀴논시 백내장수술센터를 지원키로 했다. 순천향나눔회를 통해 매년 300만원을 지원해 퀴논시 저소득층 실명예방 사업을 펼치게 된다. 용산구 자매도시인 베트남 퀴논시의 백내장 수술센터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용산구청, (주)아모레퍼시픽이 힘을 모아 지난해 4월에 건립했다.



척추 수술 환자를 위한 '순천향 척추심포지엄'

제10회 순천향척추심포지엄이 3월 2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열렸다. 'Total care of patients for Spine surgery'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척추외과 전문의는 물론 내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분야 전문의 18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그

순천향 40주년 기념 원우회 청계산 등반대회 성황

순천향대학교병원 40주년 기념 원우회 등반대회가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청계산에서 열렸다. 원우회가 개최한 이번 등반대회에는 옥시영 원우회장(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을 비롯해 서교일 순천향 대학교 총장, 김성구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병원장 등 원우회 회원과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등산을 마친 후에는 등산로 입구 소담채 식당에서 오리로스와 닭백숙, 두부, 해물 파전과 막걸리 등으로 산행의 피로를 씻었다. 또한 백화점상품권을 비롯해 냉장고, TV, 침대 등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을 마련, 최다 가족 참가상, 최고령 참가상, 퀴즈풀이,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시상했다.



“순천향대병원 소화기암센터 조주영 교수팀, 일본위암학회 국제 세션 주관”

서울병원 소화기암센터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고원진)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일본 위암 학회 학술대회에서 9년 연속 소화기 내시경 분야 국제 세션을 주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학술대회 동안 조주영 교수팀은 <조기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과 외과 수술의 장기 생존율 비교 연구> 등을 발표해 일본은 물론 외국 내시경 의사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 40주년기념 의료봉사 실시

부천병원과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이 공동으로 3월 15일(토) 시흥시 소재 베다니마을에서 '순천향 40주년기념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부천병원에서는 5개 진료과 교직원 약 40명이 참가해 베다니마을 거주자와 저소득층 환자 80여명을 대상으로 150여건의 진료를 실시했다. 서울덕우라이온스클럽회원 약 30명은 의료봉사 지원, 대청소 등을 진행했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 지정

3월 14일(금)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센터장 이유경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지정됐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센터 지정이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고 부작용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확립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한미안마봉사회 발족

한미안마봉사회(회장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를 발족하고 향후 현지 의료봉사, 건강예방교육, 의사연수,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등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한미안마봉사회는 부천병원과 부천처음교회가 뜻을 함께해 조직한 봉사단체다. 발족식은 3월 28일(금) 순이홀에서 교직원 및 부천처음교회 성도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순천향 40주년 기념 '힐링콘서트'

순천향 40주년을 기념해 4월 1일(화) 향설대강당에서 개최한 '힐링콘서트'에 500여명의 환우와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그맨 정진수의 사회로 가수 편승엽, 진미령, 심신, 동후, 미스코리아 출신 걸그룹 K-Girls, 아일라, 이슬, 정유영 등이 출연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울병원 동정

김지선 신경과 교수, 전임의학술상 수상

김지선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4월 12일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 질환학회(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 전임의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임의 재직 기간 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부천병원 동정

김현정 교수 외 7명 / 중앙혈액내과

2.13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장선영 교수 / 안과

2.25 대한안과학회 제1회 태준연수기금 대상자로 선정

김형철 부원장 / 외과

4.1 순천향대학교 36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순천향대학교 선정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 수상

신미용 교수 / 소아청소년과

4.12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14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김수영 영양사 / 영양팀

3.8 건국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감상선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 수상

김영록 방사선사 / 방사선종양학과

4.26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개최된 2014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수상

홍대식·박성규 교수 / 중앙혈액내과

3.29~4.3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유럽골수이식학회에서 주제발표

온영훈·장선영 교수 / 안과

4.1~6 일본에서 개최된 World Ophthalmology Congress에서 주제발표

남계현 교수 / 산부인과

4.6~13 미국에서 개최된 ASCCP에서 주제발표

김태희 교수 / 산부인과

4.30~5.4 멕시코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Menopause Society에서 주제발표

문종호·고봉민 교수 / 소화기내과

5.2~9 미국에서 개최된 미국소화기학회에서 주제발표

홍수진 교수 / 소화기내과

5.2~10 미국에서 개최된 ASGE에서 주제발표

박태관 교수 / 안과

5.4~10 미국에서 개최된 미국안과 및 시과학회에서 주제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순천향 40주년 기념 헌혈 행사

'순천향 40주년' 기념 헌혈행사를 4월 2일(화) 진행했다. 이날 헌혈행사를 위해 2대의 헌혈버스가 대기했는데 교직원 75명이 헌혈에 동참하면서 헌혈버스의 하루 최대 수용 가능인원에 준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중 총 23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사회사업팀에 기증했다. 기증된 헌혈증은 본원 저소득 환자의 수혈료 경감에 지원될 예정이다.

직장인을 위한 '토요진료' 전면 확대

바쁜 직장인들에게 편리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전면 '토요진료'를 확대했다. 토요일 진료시 특진 교수 비율을 높이고, 일반적인 질환

에 대한 수술도 시행한다. 이로써 평일 병원 진료를 위해 휴가 내기가 어려웠던 바쁜 직장인들의 경우, 금요일 외래진료를 통해 토요일에 바로 수술을 받는 등 빠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의사 10명, 간호사 5명 등 의료진 총 15명이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안산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4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5일 동안 안산시 단원고에 의무지원 봉사를 시행했다.

의료진들은 이 기간 동안 학생, 교사,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

천안병원이 외래환자들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최근 도입한 '지능형 순번대기표 발급기'가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능형 순번대기표 발생기는 번호표 발급 시 접수 및 수납에 필요한 환자정보가 창구의 컴퓨터로 자동 전달되는 첨단 기능이 더해진 것. 이미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환자가 대기 순서에 따라 창구로 가면 별도의 입력과정 없이 곧바로 접수 및 수납절차를 마치게 된다. 지능형 순번대기표 발행기 도입으로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말하고 다시 창구 직원이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던 일련의 과정들이 사라짐에 따라 그만큼의 대기시간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아청소년 수면장애클리닉 건강강좌 개최

천안병원 소아청소년 수면장애클리닉은 3월 17일 세계수면의 날을 기념해 건강강좌를 열었다. 오후 4시부터 병원 별관 강당에서 열린 강좌에서는 ▲소아 수면다원검사 및 수면장애의 이해(양광의 신경과 교수), ▲소아 수면 호흡장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박준수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청소년의 올바른 수면습관(김승수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총 3개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좌에는 교직원과 환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천안역에서 암 예방 캠페인 벌여

천안병원은 3월 21일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와 함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암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천안역 내부 통로에서 열린 캠페인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캠페인에서 병원 영양사들은 인체로, 패널 및 식품전시 등을 통해 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생활 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했으며, 간단한 영양상담도 실시했다.



제11회 신춘연수강좌 열어

천안병원 산부인과는 3월 30일 병원 교육관 2층 강당에서 제11회 신춘연수강좌를 열었다. 강좌는 부인종양학, 일반부인과학, 산과학, Special Interest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배동한(천안병원), 이효표(서울병원), 이임순(서울병원), 이해혁(부천병원), 이권해(부천병원), 이정재(서울병원), 선우재근(천안병원) 교수 등 순천향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들과 경북대병원 박일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영역별 강연을 담당했다. 강좌에서는 총 10개의 강연이 이어졌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작

병원 방문 없이도 진료관련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병원 홈페이지(<http://www.schmc.ac.kr/cheonan>)를 접속한 다음 인터넷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발급 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상급병실확인서, ▲통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이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재발급만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핸드폰을 이용해 지불하면 된다. 인터넷 발급 증명서 맨 아랫부분에는 '복사방지마크'와 '2차원 고밀도 바코드' 등 위변조 방지 및 검증 장치도 들어있다.

순천향 창립 40주년 기념 의료봉사 실시

천안병원이 4월 12일 충남 아산시 아산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13개과 진료를 중심으로 초음파, 내시경, X-ray,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영양상담, 3일치 약도 제공했다. 130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 의료봉사에는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이문수 병원장, 아산시 온주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참여, 봉사현장에는 259명의 아산시민들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으며, 그 중에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국인근로자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날 활동결과 총 진료건수는 539건, 검사건수는 150여 건에 달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및 종합건강증진센터 개소식

구미병원이 소화기질환의 진단과 치료기능을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와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종합건강증진센터의 개소식을 3월 28일 갖고 본격적인 진료와 검진에 돌입 했다. 개소식에는 이문수 관리원장이 참석, "변화된 공간에서 의료의 질적인 변화도 기대된다"며 개소를 축하했다.

구미병원 개원35주년 기념식, '100년을 향한 도약'

구미병원이 4월 2일 개원 3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했다. 병원발전에 기여하고 직원간 친목화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직원에게 모범직원상 수여 및 장기근속에 대한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박래경 병원장은 "순천향의 35년은 교직원들의 시련과 극복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00년을 향해 이제는 도약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구 의료원장도 교직원들의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며 "중장년기를 맞은 순천향이 이제는 넘치는 에너지로 그간 이뤄왔던 신뢰를 주축으로 활기찬 미래를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희망 화분 나누기' 행사 눈길

구미병원이 40주년 기념 이벤트로 '희망의 화분 나누기 행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4월 4일 열린 행사는 외래 고객들에게 화분 500개와 꽃씨 500개를 나누어 주었다. 박래경 병원장은 "봄기운을 환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환자분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꽃을 가꾸면서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직원 주인의식 강화 교육

'나의 주인의식 DNA를 깨워라'를 주제로 전직원 주인의식 교육을 가졌다. 3월 29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박보영 강사의 '명품리더가 되는 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4월 14일부터 사흘간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개인의 열린지수를 확인하는 한편, '병원의 주인은 나'임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대아동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MOU 체결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여성긴급전화1336 경북센터 등 5개 기관단체는 4월 18일, 구미경찰서에서 MOU를 체결하고 아동학대의 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공동 대응기로 했다.

"의료봉사로 40주년 의미 더해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무료진료 실시

구미병원이 4월 19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복지관을 찾은 봉사단은 5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혈액, 골밀도, 심전도, 초음파검사,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검진 대상자는 대부분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소염진통제와 파스처방이 주를 이뤘다. 이태일 의료봉사단장은 "올해 순천향 창립 40주년과 의료봉사단 3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며 "우리사회를 밝게 만드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명실상부한 사회공헌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작품전시회, 재활 의지와 활력 충전 시켜

구미병원은 4월 11일, 재활환자가 만든 꽃꽂이와 비누 공예품 등 30여점의 작품 전시회를 열어 재활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재활의지를 고취시켰다. 작품과 함께 환자의 가족사진과 건강했던 이전 모습도 전시하여 자존감 향상과 가족애를 갖는 시간이 됐다.



천안병원 동정

권영준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정신약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
으로 선출

김홍수 교수 / 소화기내과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회장 선임

백무준 · 안태성 · 정동준 교수 / 외과
대한대장항문학회로부터 '사노피-아벤티스 학술
상' 수상

양광익 교수 / 신경과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월드 2014
년판'에 등재

여승구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심사
위원상 수상

한선옥 교수 / 외과
3.12~16 스리랑카 '아시아내분비외과학회'에
서 포스터 발표

이은영 교수 / 신장내과
3.24~28 캐나다 '키스톤 심포지엄'에서 포스터 발표

김은석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3.27~31 미국 'TACO 워크숍' 참석

김일영 교수 / 영상의학과
3.30~4.4 스위스 'IDKD 2014' 참석

정문선 교수 / 안과
3.31~4.5 일본 'WOC 2014'에서 포스터 발표

김소영 교수 / 안과
4.2~6 일본 'WOC 2014'에서 포스터 발표

백무준 교수 / 외과
4.5~9 미국 'AACR 2014'에서 포스터 발표

권영준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4.9~12 슬로베니아 '2014 WPA'에서 포스터 발표

김성용 교수 / 외과
4.10~13 말레이시아 'AOS 2014' 참석

4월 신규 교원
응급의학과 김영기 교수

5월 신규 교원
소화기내과 강병일 교수, 고규봉 교수
외과 이종은 교수
응급의학과 김기환 교수



구미병원 동정

양승부 교수 / 영상의학과
3.6~11 오스트리아 빈서 열린 ECR 학회에서 발표
4.15 경상북도사회 정기회의에서 학술상 수상

안지훈 교수 / 심장내과
4.2~6 노르웨이에서 열린 EHC 2014 참가

윤종현 교수 / 비뇨기과
4.9~16 스웨덴 스톡홀름 EAU학회에서 포스터
및 구연 발표

김명신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3.30 '국가결핵관리사업' 공로 인정 경상북도지사
표창 수상

신임교원
이비인후과 이경수 교수
치과 서영석 교수



Medical Science & Technology
의약품 유통전문기업
동양MST

사람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선도합니다.



DONG YANG
MST

株式會社 東洋 MST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38(한남동)
 전화: 02)794-7011 팩스: 02)797-8080



순천향, 인술(仁術)40년 100년을 이어갑니다

하늘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

Letter of Thanks

“칭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에서 탈모로 인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파릇파릇하고 뜨거운 청춘을 보내야하는 시점에서 다발성탈모란 것은 저의 삶을 모두 바꿔놓을 정도로 저를 비롯한 주변 모든 이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완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신 이종석 교수님과 친절히 머리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따끔한 주사를 놔주신 간호사님들과 피부과의 홍일점, 어머니 같은 친절한 피부과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이시는 접수관리해주시는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완치를 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이젠 그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건 왜일까요~? 피부과 사람 전부 감사 또 감사합니다.

작성자 배OO

“박세훈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6일 19시경 교통사고로 어머니(권OO 75세)을 천안병원 응급실로 모셨던 며느리입니다. 어머니는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 CT촬영을 하고, 이마를 15바늘 정도 꿰매고, 의식도 혼미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황이 없는 데 응급실에 계시던 박세훈 교수님이 어머니를 보시고는 “괜찮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란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교수님께 감사의 글을 남기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은 교수님 덕분에 퇴원을 하시고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향대학교병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박세훈 교수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임OO

“상재홍 교수님 진심어린 치료 고맙습니다”

저는 북한 이탈주민입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번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이번처럼 큰 감동 받기는 처음입니다. 산부인과 상재홍 교수님이 너무도 친절하시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심정으로 늘 환자의 질병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담당분야가 아닌 것도 그쪽에 의뢰해서 환자의 상태가 완전 쾌유 될때까지 극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병이 저절로 낫는 것 같았습니다. 병은 마음이 절반이라고 하죠 상재홍 교수님처럼 친절하시고 진심어린 치료를 해주신다면 모든 환자들이 걸든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 옥계동 이주옥

